

2015-07

기본연구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 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 연구

문순덕 · 강세현

Ending issue rese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rch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15-07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 연구

문순덕 · 강세현

발 간 사

최근 우리사회는 주 5일제의 정착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향유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가 가능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향유 계층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던 시기에는 이를 누릴 수 있는 계층이 정해져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자신들의 거주지역, 경제적 수준, 나이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면서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균등하게 전파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에 문화격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향유자 측면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만족도·콘텐츠·기반조성' 등에 대한 충족 여부 등을 정확하게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문화격차 요인을 알 수 있는 기초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의 읍면지역 주민 대상 문화격차 의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읍면지역 간 문화격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12개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 활동 관련 욕구 및 의식, 문화격차 의식, 문화격차 해소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위한 접근성 제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필요,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고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 과제로는 '문화예술 전문가 인력풀 공유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인의 지역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공간 활용화,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읍면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이 문화예술 활동 관람자로서 참여자로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기춘

연구요약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계층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던 시기에는 그다지 문화격차를 의식하지 못했으나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문화격차가 논의되기 시작함.
- 이에 문화예술 향유자 측면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만족도·콘텐츠·기반조성’ 등에 대한 충족 여부 등을 정확하게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문화격차 요인을 알 수 있는 기초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의 읍면지역 주민 대상 문화격차 의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 범위와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12개 읍면지역 주민(361명)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분포 현황,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함.

3. 연구 의의와 한계점

- 정부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지역 내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방안 제시에 연구 의의가 있음.
-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수요층의 욕구가 다양하지만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제주 전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연구기간, 예산 등)이 있어서 우선 읍면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4.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현황

-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을 보면,
 - 공공도서관은 24개로, 지방자치단체 직영 도서관 15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직영 도서관 6개, 특수 도서관(점자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3개 등이 있음.
 - 박물관과 미술관은 75개로 박물관 24개, 미술관 19개, 전시관 22개, 수족관 1개, 식물원 9개 등이 있음.
 - 기타 문화시설은 204개로 공연시설 32개, 문예회관 1개, 문화의집 21개, 문화원 3개, 작은도서관(문고) 147개 등이 있음.
- 지역별 문화시설 분포 현황(2015. 02. 기준)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 87개, 제주시 읍면지역 72개, 서귀포시 동지역 59개, 서귀포시 읍면지역 68개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외국어 교육, 지역의 역사 이해 교육, 전통예술과 문화 관련 교육' 등이 있으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됨.
-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시설 간 정보 교류, 홍보를 통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5.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12개 읍면지역 주민 361명을 대상으로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1)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위한 접근성 제고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관람에 필요한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함.

2)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필요

- 읍면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연예공연(쇼, 콘서트 등) 관람, 영화 관람, 연극공연(뮤지컬 포함) 관람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에 있는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관람 활동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3)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고려

- 제주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선택됨.
- 읍면지역 주민들이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울 및 수도권지역과 비교하여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공통된 항목은 ‘문화시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향후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읍면지역에 건립·재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향유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6.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 과제

1) 문화예술 전문가 인력풀 공유 시스템 구축

- 문화격차 대상과 조건에 따라 해소 방안이 다를 수 있으나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 전문가 인력풀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시설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

3)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활성화

- 읍면지역 주민들은 지역 간 문화격차의 차이를 문화수준과 문화활동의 기회의 차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읍면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 권장이 필요함.

4) 문화예술인의 지역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각이 필요함.

5)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공간 활용화

- 마을의 복합시설을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문화예술인들이 복합시설 이용에 용이하도록 마을에서는 복합시설의 이용 조건, 이용 기간, 사용 목적, 경비 등을 공지함으로써 복합시설 공유 기회를 제공함.

6)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 문화예술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교육기관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강화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읍면지역은 물론 도서지역 주민들도 문화예술 관람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7. 발전 과제 연차별 추진 계획

발전과제	연차별 주요 추진 내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문화예술 전문가 인력풀 공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문화예술전문가 인적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 지역거점 문화예술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풀에 대한 기관과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평가 및 확대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문화향유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평가 및 확대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문화예술 동호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및 발표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호회 조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평가 및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역활동 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준비 문화예술마을 조성 계획 수립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가협동조합조직 및 운영 마을 중심의 문화예술마을 1개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마을 1개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평가 및 확대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공간 활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복합시설 사용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공간 활용에 대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활용 공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평가 및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전담 전문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별, 계층별 문화예술 교육 강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평가 및 확대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6
4. 연구 의의와 한계점	13
II.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분석	15
1.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	15
2.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19
3. 문화예술 활동 추진 동향	26
4. 문화예술 여건 분석 결과	36
I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해석	41
1. 조사 개요	41
2. 분석 결과	43
3. 정책적 시사점	81
IV.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 과제	87
1. 문화예술 전문가 인력풀 공유 시스템 구축	87
2.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89
3.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활성화	92
4. 문화예술인의 지역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93
5.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공간 활용화	94
6.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96

참고문헌	99
Abstract	100
<부록> 설문지	102

<표 차례>

<표 II-1> 전국 문화시설 현황	20
<표 II-2>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22
<표 II-3> 제주의 지역별 문화시설 분포 현황(2015. 02. 기준)	24
<표 II-4> 문화시설 수 및 이용자 수	27
<표 II-5> 문화예술 관람 활동	28
<표 II-6> 부족한 문화 환경 요인	29
<표 II-7> 문학 활동 실적	30
<표 II-8> 미술 활동 실적	31
<표 II-9> 서예 활동 실적	31
<표 II-10> 사진 활동 실적	32
<표 II-11> 건축 활동 실적	32
<표 II-12> 양악 활동 실적	32
<표 II-13> 국악 활동 실적	33
<표 II-14> 연극 활동 실적	33
<표 II-15> 무용 활동 실적	34
<표 II-17>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	35
<표 III-1> 조사지역	43
<표 III-2> 인구학적 특성	44
<표 III-3> 지난 1년 동안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46
<표 III-4> 인구학적 특성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46
<표 III-5> 거주기간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47
<표 III-6> 학력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47
<표 III-7> 직업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48
<표 III-8> 주관적 계층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48
<표 III-9>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49
<표 III-10> 인구학적 특성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49
<표 III-11> 거주기간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0
<표 III-12> 학력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1

<표 III-13> 직업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1
<표 III-14> 주관적 계층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2
<표 III-15>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지역	53
<표 III-16>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3
<표 III-17> 인구학적 특성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4
<표 III-18> 거주기간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5
<표 III-19> 학력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5
<표 III-20> 직업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6
<표 III-21> 주관적 계층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57
<표 III-22>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 지역	57
<표 III-23>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람 활동 중 만족스러운 것(복수응답)	58
<표 III-24> 문화예술 관람 활동 이유	59
<표 III-25>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공동 참여자	59
<표 III-26>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점	60
<표 III-27> 거주지에서 가장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 행사(복수응답)	61
<표 III-28>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고려사항	61
<표 III-29> 시설별 이용 경험	62
<표 III-30> 시설별 향후 이용 의향	63
<표 III-31> 인구학적 특성별 영화관 이용 의향	64
<표 III-32> 거주기간별 영화관 이용 의향	65
<표 III-33> 학력별 영화관 이용 의향	65
<표 III-34> 직업별 영화관 이용 의향	66
<표 III-35> 주관적 계층별 영화관 이용 의향	67
<표 III-36> 인구학적 특성별 공연장 이용 의향	68
<표 III-37> 거주기간별 공연장 이용 의향	69
<표 III-38> 학력별 공연장 이용 의향	69
<표 III-39> 직업별 공연장 이용 의향	70
<표 III-40> 주관적 계층별 공연장 이용 의향	71
<표 III-41>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72
<표 III-42>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인식	74

<표 III-43> 거주 지역과 제주시 동지역의 비교	74
<표 III-44> 거주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비교	75
<표 III-45> 거주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비교	76
<표 III-46>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77
<표 III-47>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유 ...	78
<표 III-48>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	78
<표 III-49>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79
<표 III-50>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복수응답)	80
<표 III-51> 문화격차 해소의 중요 역할자	80
<표 IV-1> 발전 과제 연차별 추진 계획	97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5
[그림 2] 전국 문화시설 수 및 인구 수	21

I. 연구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계층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던 시기에는 그다지 문화격차를 의식하지 못했으나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문화격차가 논의되기 시작함.
- 문화격차라고 하면 문화예술 향유자와 문화예술 창작자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문화예술 향유자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 부여 등에 중점을 두었음.
- 말하자면 문화격차는 외부적 요인(문화예술 이용에 따른 비용, 문화시설, 거주지역 등)에 있다고 보는 한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소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혜택에서 배제된 문화 소외 계층이 있다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함.
 - 문화예술 향유 계층 간에도 향유 기회 과다에 따라 상대적 격차 의식이 발생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촉매 역할로 문화시설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또는 만족도의 측정 기준을 문화시설의 설치와 활용에 두기도 함.
- 이에 사람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하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음.
- 문화시설의 특성상 인구밀집 정도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철학으로 삼고 모든 국민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국민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시행하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¹⁾의 확대 추진을 통해 지역 간·계층 간 문화기본권을 보장해 주려는 문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2015년에는 ‘문화의 일상화’를 전략으로 삼고 생활과 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문화예술 향유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생활화하는데 차별적 요인을 없애려는 보편적 문화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주 5일제의 정착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향유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문화예술 향유 욕구에 따라 문화격차 의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균등하게 전파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에 문화격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문화예술 향유자 측면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만족도·콘텐츠·기반조성’ 등에 대한 충족 여부 등을 정확하게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문화격차 요인을 알 수 있는 기초 연구가 필요함.

1) 이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는 것임(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이 제도는 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문화시설 분포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가 발생하므로, 제주지역 내에서도 동지역(도시지역)과 읍면지역(농어촌지역) 간에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만족도 등에 대한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음.
 - 동지역(도시지역 중심)에 문화시설이 편중되어 있어서 읍면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정부의 문화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와 창작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 향유 기회는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농어촌 등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의 읍면지역 주민 대상 문화격차 의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방법

가. 범위

- 보편적으로 문화격차라고 하면 지역 간 격차와 계층 간·세대 간 격차로 구분할 수 있음.
- 여기서 지역 간 문화격차의 대상은 마을, 읍면지역, 도시지역 간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이 해당되며, 각각의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장소'가 비교 대상이 됨.

- 이 연구는 지역 간 문화격차 요인 분석만을 논의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12개 읍면지역 주민(361명)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문화예술 관람자(문화예술 향유자 측면)의 입장에서 읍면지역 주민의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을 조사함.
- 또한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분포 현황,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함.

나. 방법

- 이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 관람자의 측면에서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때 행정자료,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선택함.

1) 행정자료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현황 분석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행정자료를 통해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문화예술 활동 추진 실적 등을 분석하였음.
 - 이 자료들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봄.

2)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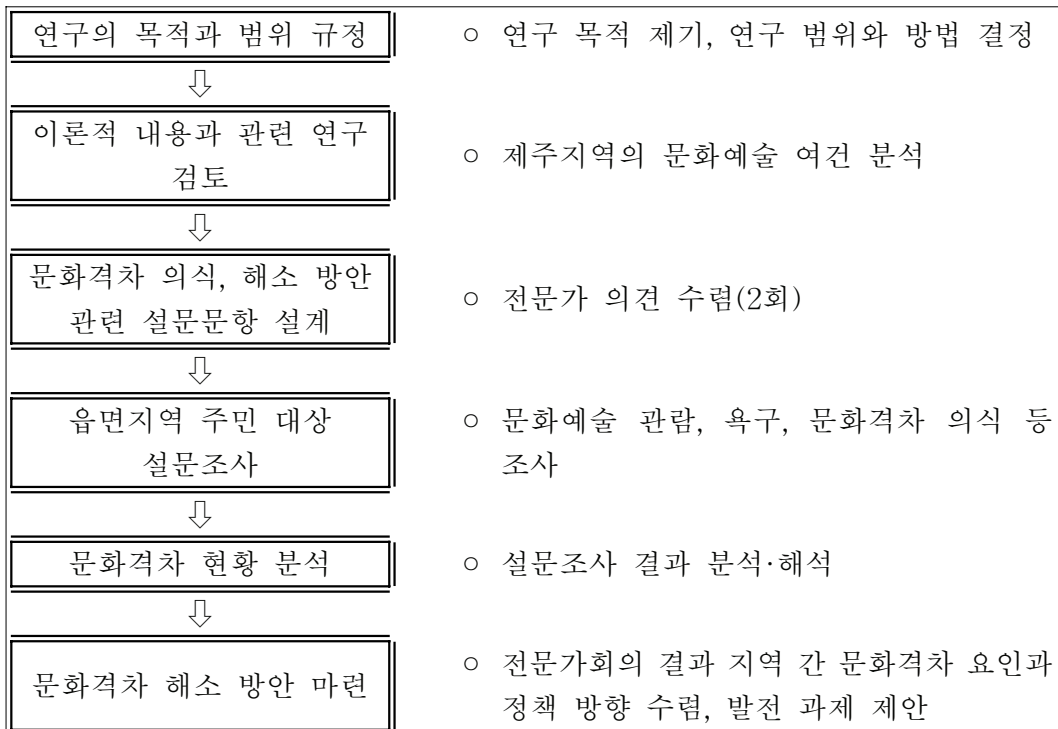
-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 요인과 의식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12개 읍면지역 361명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 참여 활동 관련 욕구 및 의식, 문화격차 의식, 문화격차 해소 방안' 등을 조사함.

3) 전문가 의견 수렴

- 이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설문문항 설계에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렴하여 반영함.

다. 연구 수행 절차

-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범위와 방법을 결정함.
-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 인식, 정책 방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문화격차 요인을 파악함.
- 문화격차 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함.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3. 선행 연구 검토

- 여기서는 ‘문화,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격차’ 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본 후, 문화격차 해소 정책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함.

가. 개념 정의

-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독자적인 문화와 그에 따른 격차 정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문화의 정의에 준함.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역시 법률의 정의를 따르고,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을 분석할 때도 이 범주 내에서 논의하고자 함.

1) 문화에 대한 정의

- 사전적 정의
 - 문화(文化, culture)란 “사람들의 생활양식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모든 것”(『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 사이트 참조)
 -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이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언어, 관념, 신앙, 관습, 규범, 제도, 예술, 의례 등”(『브리태니커백과사전』, 인터넷사이트 참조)
- 유네스코의 정의
 - 문화란 “사회 혹은 사회적 집단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 감상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공존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을 포함하는 것”(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 전문’, 2001. 11. 02. 제3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 문화 관련법에 따른 정의

-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뜻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가리킴.

○ 따라서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총칭하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이 정의에 준하고자 함.

2) 문화예술의 정의

○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가리킴(「문화예술진흥법」, 제11313호 참조).

○ 이에 제주의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만족도,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기회 등을 논의할 때는 이 범주에 준하고자 함.

3) 문화시설의 정의

○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항목의 시설을 말함(「문화예술진흥법」, 제11313호 참조).

-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영화관, 야외음악당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화랑, 조각공원 등)
 -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마을문고 등)
 -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이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지정하는 문화시설 범위에 근거하여 제주 지역의 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4) 문화격차의 정의

- 문화격차는 한 국가 내에서 지역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데, 주로 외적 요인에 따라 문화시설, 문화예술 관람 유형, 관람 횟수, 문화향유 콘텐츠 유형(종류)과 이에 대한 문화향유 민족도 등을 문화격차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먼저 격차(隔差)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등의 동떨어진 차이 또는 서로 다른 정도”를 가리키므로, 문화격차란 문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차이로 볼 수 있음.
 - 이때 ‘문화적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함.
- 문화격차는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향수가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이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문화에 대한 접근이나 향유 기회에 대한 차이가 문화주체 간에 존재하고, 문화접근도와 향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킴(박노동·김홍태, 2012 : 16).
- 문화격차란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주체들에게 문화에 접근하거나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기도 함(박태선·이미영·한우석, 2014 : 27).

- 지역 간 문화격차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에 접근하여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에 해당됨.
- 이 연구에서는 이 정의에 준하여 문화격차 요인과 해소 방안을 다루고자 함.

나. 문화격차 판단 기준

- 문화격차 판단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향유 관련 공급의 측면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문화예술 향유 관련 수요의 측면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함.
- 관람자 측면에서는 ‘문화시설(문화향유 기회),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개인적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프로그램), 행정 지원, 소득수준’ 등이 해당됨.
- 참여자 측면에서는 ‘문화시설 이용 기회, 참여활동 관련 개인적 만족도, 지역의 여건, 지원 정책, 소득수준’ 등이 해당됨.

1) 문화시설 기준

- 문화격차 정도를 파악할 때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1차적 기준으로 보므로, 이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문화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등에 대한 격차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2) 문화예술 향유 환경 기준

-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환경에 따른 문화격차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문화예술 관련 재정 지원,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삼음.

다. 문화격차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여기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격차 해소 방안에 역점을 둔 연구이며, 전국 단위의 문화격차 해소 방안을 다룬 연구도 있음.

1) 선행 연구 검토

- 서울특별시의 문화격차 연구(조권중, 2004)는 서울시민의 문화적 수요확대보다는 시설확충과 행사에 치중해 온 서울특별시의 문화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층별·학력별·지역별 문화격차 실태 조사와 문화향수 실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경상남도의 문화격차 연구(한상우, 2009)는 문화시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다루었음.
 - 이 연구는 경남지역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경남도민들의 문화격차 해소 방안을 제안하였음.
 -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 단위 시설들의 균형 배치 문제, 운영 평가와 개선 방안, 각종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임(한상우, 2009).
 - 이는 주민들의 요구나 행정의 편의를 위한 문화시설 건립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임.
- 대전광역시의 문화격차 연구(박노동·김홍태, 2012)는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시설 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격차 해소 방안을 제안함.

-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문화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문화시설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임.
 - 문화격차 인식 조사 결과 지역 사회계층의 문화권 보호 정책과 문화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전라북도의 문화격차 연구(장세길·이중섭, 2013)는 지역 단위로 구분하는 격차 분석방법을 벗어나서 지역을 유형화하여 가능하면 문화격차 요인을 폭넓게 찾아내고자 하였음.
- 전라북도의 읍면동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세대별 인구 비율, 문화시설 수 등을 포함하여 다층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
 - 즉 문화접근도의 제고를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과 여건 특히 문화시설을 주요 지표로 삼고 지역유형을 분류하였음.
- 전국 단위 문화격차 연구(박태선·이미영·한우석, 2014)는 문화향유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 만족도의 격차를 다루고 있음.
- 전국 시도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주로 지역 간 문화향유 기회여건을 분석하였음.
 - 특히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향유 만족도 재고, 지역의 문화향유기반 강화 등을 들고 있음.

2) 선행 연구의 시사점

-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고, 문화적 경험이 많아지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격차 인식이 나타남.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문화격차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식 기준 등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다를 수 있음.

-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인 ‘문화시설 분포 현황, 제공되는 콘텐츠 종류, 관람 기회 등이 중요하게 작용됨.
- 선행 연구 사례는 주로 전국 단위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문화격차 요인과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음.
- 반면 이 연구는 제주지역 중에서도 읍면지역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결국은 마을 단위별 문화격차 해소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연구 의의가 있음.
- 즉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 정도, 격차 인식, 제주의 동지역과 다른 지방을 비교하여 문화격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자의 다양한 욕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단위로 보고 읍면동지역 전체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문화예술 향유 소외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읍면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된 점이 선행 연구와 차별됨.
- 그러므로 이 연구는 제주지역 내 읍면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자(관람 활동)로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만족도 측면에서 나타나는 격차에 중점을 두었음.
- 또한 문화예술 향유자의 측면에서 ‘문화시설, 다양한 콘텐츠 제공, 예산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동시에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려고 함.
- 이 연구는 문화예술 향유자(소비자)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문화예술 창작자(공급자, 생산자) 측면에서도 문화에 대한 격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두 측면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4. 연구 의의와 한계점

- 사람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왕성해지려면 창의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한 창작과 향유의 권리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권리와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낄 때 거주지역에 대한 생활만족도, 삶의 가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문화예술의 차이를 인지하고 확인하는데 객관적 자료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주관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 가능함.
 - 문화예술 관람자(문화 소비자 측면)로서, 문화예술 참여자(문화 생산자 측면)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간극이 발생할 수 있음.
- 말하자면 문화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 관람자(문화 향유자) 측면과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문화 예술 창작자) 측면에서 문화격차의 인식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문화예술 활동 관람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문화격차는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와 기회가 불평등할 수 있다는 것임.
 - 개인적 욕구와 상관없이 거주지역의 환경에 따른 격차,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등이 있음.
-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문화격차는 안전한 조건에서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이 해당됨.
 - 창작 공간과 발표 공간의 미흡, 재정적 지원 여부 등이 있음.
- 정부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지역 내 읍면지역의 문화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 제시에 연구 의의가 있음.

-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수요층의 욕구가 다양하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 전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연구기간, 예산 등)이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읍면지역 주민 대상 문화격차 관련 연구와 더불어 동지역 주민 대상 연구가 이루어지면 제주지역의 문화격차 발생 요인을 전반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제주의 문화융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봄.

II.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분석

1.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

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정책

- 문화에 대한 세계의 시각은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에도 잘 드러나는데, 이 선언을 기초로 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이 채택됨.
-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 번째 비준 국가가 되었으며,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2010년 7월에 정식 발효됨.
 - 이 협약 이행에 필요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 5. 28.), 시행함(2014. 11.29.).
 - 특히 이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함(2015년 시작).
- 이에 정부는 지역·계층·세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문화권 확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예술 향유자 지원 측면에서는 '생활 속 문화 확산, 문화 공간 조성 확대, 인문정신·전통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예술 창작자 지원 측면에서는 '창작 생태계 조성, 문화 인력양성, 창작자 존중 환경' 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참조).
- 정부의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예술 생산자(창작자) 측면에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문화시설 건립,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 안정망 구축과 지원은 결국 문화예술 향유자(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고 봄.
- 그러나 국민 누구나 바라는 대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지역별, 개인별로 향유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게 됨.
- 문화격차에 대한 인식 여부는 관람자(향유자)와 참여자(창작자)의 입장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 관람자 측면에서는 개인적 관심도, 문화시설 이용 정도, 문화시설의 접근성, 다양한 프로그램 접촉 기회 등 생산에서 유통 단계까지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는지 등으로 문화격차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음.
 - 참여자 측면에서는 문화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활용 기회, 창작 여건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등 문화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라 문화격차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문화권을 존중해 주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문화를 통한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융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고, 2013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시설 수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원한다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전국의 1,574개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1,800개의 문화시설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료 관람이나 할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공공 문화시설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제주도민 대상 ‘문화가 있는 날’ 시행 결과 분석을 통해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나. 지역문화진흥 정책 시행

-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을 보면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인 문화를 보편적 권리로 확산시키려는 문화기본권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민들에게 균등하고 지속적으로 문화향유 기회(지역, 계층, 세대 대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음.
- 이에 국민 개개인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해 지역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음.
-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화권’을 인정한 법률이며, 누구나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창작과 향유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뜻함.
 - 이는 문화예술 창작 안전망 구축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보장해 주는 문화복지정책에 해당됨.

「문화기본법」(법률 제12134호, 2013. 12. 30.)

제1조(목적) :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지역문화진흥법」은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지역 간·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진흥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는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어떤 조건에서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지역문화진흥법」제정(법률 제12354호, 2014. 01. 28.)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와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음.
 - 두 가지 법의 핵심인 문화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지역 간·계층 간 문화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관람자의 측면에서 문화격차 요인을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가. 전국 문화시설 현황

- 전국의 문화시설은 2013년 기준 2,37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문화시설을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얻게 되고, 문화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이에 정부는 문화시설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자와 창작자 간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표 II-1>을 보면 우리나라 17개 시도의 문화시설은 2,375개인데, 경기도가 442개(18%), 서울이 324개(13%), 경상북도가 184개(7%)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124개(5%)로 10번째에 해당됨.
- 또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은 848개이고, 지방에는 1,527개가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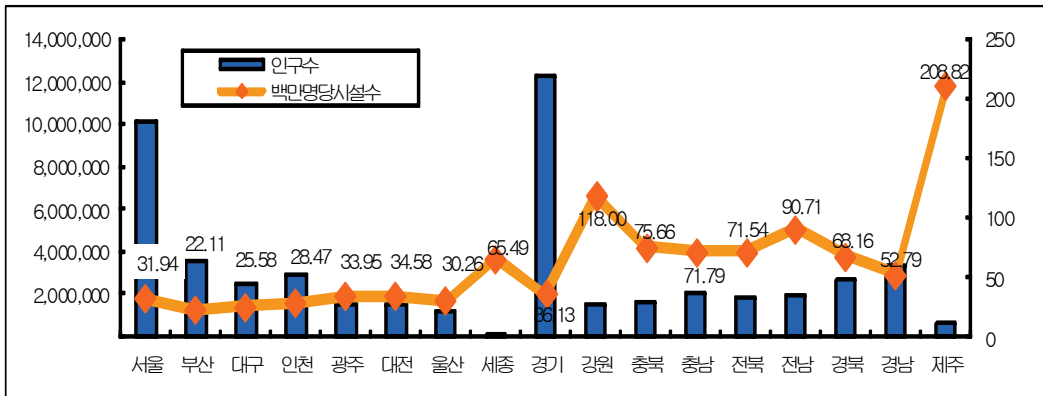
<표 II-1> 전국 문화시설 현황

(2013. 12. 31. 기준)

구분	시·도 별	총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등록 박물관	등록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 1	서 울	324	1	123	116	35	16	25	8
	부 산	78	-	31	16	5	11	14	1
	대 구	64	-	28	14	3	11	8	-
	인 천	82	-	39	23	4	8	8	-
	광 주	50	-	17	10	7	7	5	4
	대 전	53	-	23	14	5	3	5	3
	울 산	35	-	13	9	-	4	5	4
	세 종	8	-	1	5	-	1	1	-
	경 기	442	-	194	131	43	32	31	11
	강 원	182	-	47	76	12	19	18	10
	충 북	119	-	38	41	7	13	12	8
	충 남	147	-	55	44	8	17	16	7
	전 북	134	-	53	34	7	15	14	11
	전 남	173	-	60	47	19	18	22	7
	경 북	184	-	63	57	9	24	23	8
	경 남	176	-	59	54	8	19	20	16
	제 주	124	-	21	63	18	2	2	18
	총 계	2,375	1	865	754	190	220	229	116
지역 2	수도권	848	1	356	270	82	56	64	19
	지 방	1,527	-	509	484	108	164	165	97
	총 계	2,375	1	865	754	190	220	229	11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18쪽.

- [그림 2]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백만명 당 문화시설 수를 보여주는 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08개소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강원 118개소, 전남 91개소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문화시설 수가 많다고 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거나, 문화격차 의식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의 주요소로 문화시설 보급에 역점을 둔 경향이 있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쪽.

[그림 2] 전국 문화시설 수 및 인구 수

나.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 문화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는데 기초적인 기반에 해당되므로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공급, 생산 담당층)들의 이용 공간이고, 문화예술 활동 관람자(수요, 소비 담당층)들의 이용 공간이므로,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을 통해 문화예술 공급과 수요에 필요한 환경을 살펴보고자 함.
- 제주지역의 문화시설은 2015년 2월 기준 총 304개로²⁾ 조사됨(<표 II-2> 참조).
 - 공공도서관이 24개로 지방자치단체 직영 도서관 15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직영 도서관 6개, 특수 도서관(점자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3개 등이 있음.
 - 박물관과 미술관은 75개로 박물관 24개, 미술관 19개, 전시관 22개, 수족관 1개, 식물원 9개 등이 있음.

2) 전국 문화시설 현황(<표 II-1>, 2013)에는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수가 124개로 조사되었는데,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표 II-2>, 2015)에는 304개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차이는 자료 조사 시기와 문화시설의(공연시설, 작은도서관 등) 포함 여부에 따른 것임.

- 기타 문화시설은 204개로 공연시설 32개, 문예회관 1개, 문화의집 21개, 문화원 3개, 작은도서관(문고) 147개 등이 있음.

<표 II-2>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구 분	내 역	시설 수	비 고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15	도 1, 제주시 6, 서귀포시 8	
	교육청	6	제주시 3, 서귀포시 3	
	특 수	3	점자 2, 장애인 도서관 1	
	소 계	24		
박물관/ 미술관	등 록 박물관	박물관	24	국립1, 공립 8, 사립 15
		미술관	19	공립 6, 사립 13
		전시관	22	사립 22
		수족관	1	사립
		식물원	9	사립
		소 계	75	제주시 35, 서귀포시 40
기타 문화시설	공연시설	32		
	문예회관	1	제주시 1	
	문화의집	21	제주시 10, 서귀포시 11	
	문 화 원	3	도지회 1, 문화원 2	
	작은도서관	147	제주시 86, 서귀포시 61	
	소 계	204		
총 계		30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15. 02.) 참조

다. 제주의 지역별 문화시설 분포 현황

- 제주의 지역별(읍면동) 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통해 1차적으로는 지역 간 문화격차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이는 결국 계층 간·세대 간 문화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향유의 소외 계층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농어촌지역 주민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음.³⁾

3) 문순덕·고승환·이원태·김해곤(2014 : 55/81)에서는 제주의 문화 육성 정책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민 399명, 문화예술인 49명의 의견을 조사하였음.

- 제주도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의 애로 계층 응답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이 130명(32.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농어촌지역 주민 90명(22.7%), 노인 68명(17.1%)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계층을 질문한 결과 농어촌지역 주민이 16명(34.0%)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저소득층 15명(31.9%), 장애인 5명(10.6%)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문화시설을(<표 II-2>) 참고하여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표 II-3> 참조), 문화예술 창작 환경 조성과 문화예술 향유 여건 파악에 도움이 됨.
-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문화권이 보장되고, 문화격차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지역 간 문화격차 정도를 판단하는데 문화시설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화예술 향유 소외 지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봄.
- 대체적으로 문화시설 수와 종류에는 관심이 많으나 특정 지역별로 어떤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임.
-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동별로 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통해, 이 문화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자 함.
- 문화시설로는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도서관(공동도서관, 작은도서관), 기타 문화시설(문화의집) 등이 있으며, 이 문화시설들은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음.
- <표 II-2>와 비교하면 <표 II-3>에는 문예회관 1개(제주시), 문화원 3개(제주시 2, 서귀포시 1), 식물원, 수족관, 교육청·특수도서관 등의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 수에 포함되어 집계됨.

○ 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 87개, 제주시 읍면지역 72개, 서귀포시 동지역 59개, 서귀포시 읍면지역 68개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다만 서귀포시 동지역보다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문화시설 수가 많은 것은 작은도서관(마을문고 포함) 등 일부 시설 수의 편차에 따른 것임.

○ 따라서 단순히 문화시설 수로 지역별 문화격차 정도를 판단하기보다는 문화시설의 종류, 이용객, 콘텐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격차 요인 분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표 II-3> 제주의 지역별 문화시설 분포 현황(2015. 02. 기준)

	총 인구수	총수 (286)	공연시설 (38)		전시 시설 (65)			도서관 (162)		기타 문화시설 (21)
			공연장 (32)	영화관 (6)	박물관 (24)	미술관 (19)	전시관 (22)	공공 도서관 (15)	작은 도서관 (147)	문화의 집
제주시 동지역	358,931	87	13	5	7	5	1	4	44	8
일도 1동	3,550	4	1	1	-	-	-	-	1	1
일도 2동	36,558	10	3	-	1	-	-	-	5	1
이도 1동	7,945	3	-	-	-	-	-	-	3	-
이도 2동	51,224	8	-	1	1	-	-	1	4	1
삼도 1동	14,824	3	1	-	-	-	-	-	2	-
삼도 2동	9,152	4	1	1	-	1	-	-	-	1
용담 1동	8,427	0	-	-	-	-	-	-	-	-
용담 2동	16,896	1	-	-	-	-	-	-	-	1
건 입 동	10,362	3	-	-	1	-	-	1	1	-
화 북 동	26,009	3	-	-	-	-	-	-	3	-
삼 양 동	15,939	5	-	-	-	-	-	-	5	-
봉 개 동	3,080	5	1	-	1	-	-	-	2	1
아 라 동	22,907	7	1	1	1	1	-	-	3	-
오 라 동	9,168	6	1	-	-	-	-	1	4	-

II.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분석

	총 인구수	총수	공연시설		전시 시설			도서관		기타 문화 시설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문화의 집
연 동	43,904	9	1	-	1	3	1	-	2	1
노 형 동	54,007	13	2	1	1	-	-	1	7	1
외 도 동	18,076	2	-	-	-	-	-	-	2	-
이 호 동	4,029	0	-	-	-	-	-	-	-	-
도 두 동	2,874	1	1	-	-	-	-	-	-	-
제주시 동부지역	37,390	28	2	0	5	2	3	1	15	0
구 좌 읍	14,928	8	1	-	2	1	-	-	4	-
조 천 읍	20,806	19	1	-	3	1	3	1	10	-
우 도 면	1,656	1	-	-	-	-	-	-	1	-
제주시 서부지역	63,806	44	5	-	2	3	3	2	27	2
한 립 읍	22,405	15	1	-	-	1	-	-	13	-
애 월 읍	30,356	17	3	-	1	-	2	1	9	1
한 경 면	8,576	12	1	-	1	2	1	1	5	1
추 자 면	2,469	0	-	-	-	-	-	-	-	-
서귀포시 동지역	90,940	59	8	1	3	5	9	5	22	6
송 산 동	5,177	2	-	-	-	-	-	-	1	1
정 방 동	2,751	3	-	-	-	1	-	-	1	1
중 앙 동	4,592	3	-	-	-	-	-	-	3	-
천 지 동	4,021	1	-	-	-	1	-	-	-	-
효 돈 동	5,024	3	-	-	1	-	-	1	1	-
영 천 동	5,060	1	-	-	-	-	-	-	1	-
동 흥 동	23,366	10	-	-	-	1	-	1	8	-
서 흥 동	9,815	8	3	-	-	1	1	1	1	1
대 룬 동	10,428	9	1	1	-	-	3	-	2	2
대 천 동	7,531	4	2	-	-	-	-	1	1	-
중 문 동	9,357	9	1	-	2	1	2	1	1	1
예 래 동	3,818	6	1	-	-	-	3	-	2	-

	총 인구수	총수	공연시설		전시 시설			도서관		기타 문화 시설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문화의 집
서귀포시 동부지역	44,680	35	2	-	3	2	3	2	20	3
성 산 읍	14,696	6	1	-	-	1	-	1	2	1
표 선 면	11,404	15	1	-	2	1	3	1	6	1
남 원 읍	18,580	14	-	-	1	-	-	-	12	1
서귀포시 서부지역	28,320	33	2	-	4	2	3	1	19	2
대 정 읍	18,319	13	-	-	-	1	2	-	9	1
안 덕 면	10,001	20	2	-	4	1	1	1	10	1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5. 02.) 참조하여 재구성

3. 문화예술 활동 추진 동향

가. 문화예술 활동 관람 동향

- 제주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관람(향유자 측면) 동향은 ‘문화예술 향유 기반(문화시설 중심),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⁴⁾
- 문화시설 수 및 이용(관람)자 수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II-4> 참조).
 - 문화시설 수는 2011년 76개, 2012년 80개, 2013년 85개로 매년 신규시설이 건립됨.

4) 문화예술 활동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표 II-4>~<표 II-6>의 내용은 『2014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2014 : 253~257)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 문화시설 총 이용자 수는 2011년 10,911천명, 2012년 11,724천명, 2013년 12,356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문화시설의 종류에 따른 이용자 수를 보면 공공도서관이 3년 평균 3,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술관은 2,600명, 공연장은 2,300명, 박물관은 2,200명 기준, 영화관은 1,500명 순으로 나타남.

<표 II-4> 문화시설 수 및 이용자 수

(단위: 개소, 천명)

연도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개소수	이용자 수	개소수	이용자 수	개소수	이용자 수	개소수	이용자 수	개소수	이용자 수	개소수	이용자 수
2011	76	10,911	23	3,001	9	2,376	6	1,368	15	2,544	23	1,622
2012	80	11,724	23	3,059	9	2,261	5	1,361	17	2,512	26	2,531
2013	85	12,356	21	3,061	9	2,119	6	1,845	18	2,706	31	2,685

○ 제주도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경향을 보면 ‘극장에서 영화관람’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박물관 관람이 26.3%, 공연장 관람이 25.4% 순으로 나타남(<표 II-5> 참조).

○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극장에서 영화관람’은 제주시 전체는 60.6%인데 제주시 동지역이 65.9%이고, 제주시 읍면지역이 42.3%로 차이가 나타남.
- 서귀포시 전체는 45.5%인데 서귀포시 동지역은 48.8%이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42.1%로 나타남.

○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서귀포시 동지역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각각의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참여율이 낮은 것을 보면, 이는 문화시설 이용 기회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 따른 격차로 볼 수 있음.

<표 II-5> 문화예술 관람 활동

(단위 : %)

	사례 수	전시회 관람		박물관		공연장 관람		극장에서 영화관람		경기장에 방문하여 스포츠경기 관람		
		관람	비관람	관람	비관람	관람	비관람	관람	비관람	관람	비관람	
전체	5,965	24.2	75.8	26.3	73.7	25.4	74.6	56.7	43.3	14.8	85.2	
권역별	제주시 전체	3,720	26.6	73.4	28.3	71.7	27.5	72.5	60.6	39.4	12.9	87.1
	제주시 동부	2,560	30.4	69.6	32.0	68.0	31.3	68.9	65.9	34.1	14.8	85.2
	제주시 읍면부	1,160	13.6	86.4	15.7	84.3	14.9	85.1	42.3	57.7	6.2	93.8
	서귀포시 전체	2,245	17.2	82.8	20.5	79.5	19.6	80.4	45.5	54.5	20.3	79.7
	서귀포시 동부	1,175	18.5	81.5	19.2	80.8	18.6	81.4	48.8	51.2	24.4	75.6
	서귀포시 읍면부	1,070	15.8	84.2	21.8	78.2	20.6	79.4	42.1	57.9	16.0	84.0

○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 환경 조건을 보면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차이가 나타남.

○ 제주도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문화 환경은 '전시·공연·상영·행사 등 양질의 콘텐츠 부족'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접근성 불리가 27.4%, 시설 및 공간의 편의성 부족이 21.0% 순으로 나타남(<표 II-6> 참조).

- 양질의 콘텐츠 부족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제주시 읍면지역>서귀포시 동지역>서귀포시 읍면지역'순임.
- 이 응답 결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많을수록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문화시설의 접근성 불리'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36.8%, 제주시 읍면지역이 30.3%로 나타남.

- 따라서 문화환경의 만족 요인이 되는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제공과 문화시설 이용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표 II-6> 부족한 문화 환경 요인

(단위 : %)

		사례수	전시, 공연, 상영, 행사 등 양질의 콘텐츠 부족	접근성 불리	시설 및 공간의 편의성 부족	시설 및 공간 부족	이용 비용이 비싸다	홍보 부족
전체		5,965	38.1	27.4	21.0	13.3	0.1	0.1
권역별	제주시 전체	3,720	41.7	25.4	20.8	11.9	0.1	0.1
	제주시 동부	2,560	45.1	24.0	19.5	11.2	0.2	0.1
	제주시 읍면부	1,160	29.7	30.3	25.3	14.5	0.0	0.2
	서귀포시 전체	2,245	27.9	33.0	21.8	17.3	0.0	0.0
	서귀포시 동부	1,175	28.7	29.5	24.9	16.9	0.0	0.0
	서귀포시 읍면부	1,070	27.0	36.8	18.5	17.7	0.0	0.0

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현황

- 문화예술 공급자(생산자)의 측면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을 통해 제주 도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 기회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음.
-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제공에 따라 문화예술 수요자(소비자)의 만족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문화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⁵⁾을 통해 제주 도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와 문화예술 활동 관람 유형을 파악해 보고자 함.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향유자가 있어야 하므로 이 현황 분석에 따라 문화격차 요인을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음.
 - 『제주문예연감』에는 문화예술 분야를 ‘문학, 미술, 서예, 사진, 건축, 양악, 국악, 연극, 무용,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1년간 추진 실적이 수록되어 있음.
 - 『제주문예연감』에 수록된 활동 실적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2013년에 발간된 것은 2012년 실적을 정리한 것이고, 2014년에 발간된 것은 2013년 실적을 정리한 것임.
- 『제주문예연감』에 기초하여 ‘문학, 미술, 서예, 사진, 건축, 양악, 국악, 연극, 무용, 영상’ 등 문화예술 장르별로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문학 분야 실적

- 문학작품 발표 및 행사로는 2013년 147개이고, 2014년에는 261개가 진행됨.
 - 2014년에 단행본 발간은 49건에서 113건으로, 문학 행사는 24건에서 6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표 II-7> 문학 활동 실적

구 분	단행본	문예지·동인지	등 단	수 상	행 사	공 모	합 계
2013	49	29	27	18	24	-	147
2014	113	47	11	21	62	7	261

5)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현황은 『제주문예연감』(제주문화예술재단, 2013~2014)에 기초하여 재구성하였음.

□ 미술 분야 실적

- 미술 부문을 보면 2013년에 242건, 2014년에는 298건이 이루어짐.
- 2014년에 도내전시가 200건에서 250건으로, 수상 실적이 5건에서 20건으로 대폭 증가함.

<표 II-8> 미술 활동 실적

구 분	도내전시	도외전시	해외전시	수 상	해 외	행 사	합 계
2013	200	19	6	5	-	12	242
2014	250	15	4	20	9	-	298

□ 서예 분야 실적

- 서예 부문을 보면 2013년에는 75건, 2014년에는 73건으로 큰 차이가 없음.
- 2014년에는 수상 실적이 11건에서 18건으로 증가하였고, 행사 실적은 없음.

<표 II-9> 서예 활동 실적

구 분	도내전시	도외전시	해외전시	수 상	행 사	합 계
2013	54	4	2	11	4	75
2014	50	2	3	18	-	73

□ 사진 분야 실적

- 사진 부문을 보면 2013년에는 53건이고, 2014년에는 51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사진 분야 활동은 2년간 단체전 전시가 주를 이루었으며, 개인전은 일부에 그치고 있음.

<표 II-10> 사진 활동 실적

구 분	총 합	수 상	발 간	합 계
2013	45	7	1	53
2014	44	7	-	51

□ 건축 분야 실적

- 건축 부문을 보면 2013년에는 23건, 2014년에는 15건으로 감소함.
- 이는 2014년 행사 실적이 12건에서 6건으로 전년대비 50%가 줄어든 결과임.

<표 II-11> 건축 활동 실적

구 분	전 시	수 상	행 사	합 계
2013	4	7	12	23
2014	2	7	6	15

□ 양악 분야 실적

- 양악 부문을 보면 2013년에는 217건이고, 2014년에는 661건으로 3배가 증가하였음.
- 2014년에는 콩쿠르 11건, 행사 40건이 신규로 추진되어서 2013년 대비 활동 실적이 높게 나타남.

<표 II-12> 양악 활동 실적

구 분	총 합	대 회	독주· 독창	수 상	콩쿠르	도외 공연	행 사	합 계
2013	192	1	17	3	-	4	-	217
2014	574	-	22	3	11	11	40	661

□ 국악 분야 실적

- 국악 부문을 보면 2013년에는 53건이고, 2014년에는 97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음.
-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전통예술 27건, 기타 행사 15건이 증가하였으며, 수상실적도 3건이 추가되었음.

<표 II-13> 국악 활동 실적

구 분	전통예술	기타행사	수 상	발 간	합 계
2013	49	3	-	1	53
2014	76	18	3	-	97

□ 연극 분야 실적

- 연극 부문을 보면 2013년에는 104건이고, 2014년에는 206건으로 2배가 증가하였음.
-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일반 연극·뮤지컬 70건, 청소년극·아동극 25건, 도외 공연 8건, 행사 6건 등 연극 분야 전반적으로 활동 실적이 증가함.

<표 II-14> 연극 활동 실적

구 분	일반연극·뮤지컬	청소년극·아동극	도외공연	수 상	행 사	합 계
2013	59	33	3	3	6	104
2014	123	58	11	2	12	206

□ 무용 분야 실적

- 무용 부문을 보면 2013년에는 15건이고, 2014년에는 36건으로 2.5배 증가하였음.
- 2014년 종합 활동이 19건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은 편임.

<표 II-15> 무용 활동 실적

구 분	총 합	수 상	합 계
2013	15	-	15
2014	34	2	36

□ 영상 분야 실적

- 영상 부문을 보면 2013년에는 61건이고, 2014년에는 153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음.
- 상영 횟수는 2014년에 9건이 감소한 반면 수상 7건, 행사 12건, 영화제 상영작 82건 등 영상 분야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활동 실적이 활달하였음.

<표 II-16> 영상 활동 실적

구 분	상 영	수 상	행 사	영화제 상영작	합 계
2013	61	-	-	-	61
2014	52	7	12	82	153

- 이상으로 2년간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문학 분야는 408건, 미술 분야는 540건, 서예 분야는 148건, 사진 분야는 104건, 건축 분야는 38건, 양악 분야는 878건, 국악 분야는 150건, 연극 분야는 310건, 무용 분야는 51건, 영상 분야는 214건 등 총 2,841건이 추진됨.
- 2년간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가 제공된 것으로 본다면 제주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예술 장르와 기간에 따라 창작 발표 기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활동 실적만 놓고 문화예술 창작 기회 확대 여부를 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문화예술 활동 실적은 장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의 문화격차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봄.
- 문화예술 향유자의 참여횟수, 만족도 등에 따라 격차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다.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추진 현황

- 읍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 교육내용, 분야별 관심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읍면지역에 따라 2015년 상반기 또는 월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음(<표 II-17> 참조).
- 교육프로그램은 문화 관련 교육, 외국어 교육, 전통예술 등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표 II-17>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지역 구분	프로그램 내용
제주시 동부지역	
조천읍	요가교실, 난타교실, 민요교실, 풍물교실, 중국어교실 어린어중국어교실
구좌읍	사진교실, 생활한지공예, 요가, 컴퓨터교실, 켈트교실, 커피바리스타, 서각공예, 민요교실
우도면	중국어교실, 풍물교실, 요가교실, 에어로빅교실, 노래교실
제주시 서부지역	
애월읍	서예교실, 문인화교실, 기타교실, 중국어교실, 리본공예교실 켈트교실, 고전무용교실, 윈도우페인팅교실,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 합창교실, 승마교실
한림읍	시각교실, 컴퓨터교실,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독서·토론 모임 요가교실, 중국어교실, 문인화, 캘리그래피, 난타교실 전통식품만들기, 청소년 뉴스포츠 프로그램, 고전무용

지역 구분	프로그램 내용
한정면	캘리그래피교실, 라인댄스교실, 난타교실, 어린이합창교실, 이주여성 을 위한 한국어교실, 찾아가는 댄스스포츠교실, 중국어교실
추자면	기타교실, 풍물교실, 배드민턴교실, 어르신 한방강좌 영재들의 미술상자, 레인보우 벽화 동아리, 둥둥둥 난타교실
서귀포시 동부지역	
남원읍	통기타교실, 요가교실, 난타교실, 중국어교실, 켈트 소품만들기
표선면	기타교실, 마을밴드교실, 풍물교실,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밑반찬 만들기 교실, 라인댄스교실
성산읍	컴퓨터교실, 관현악기 배우기, 제주 전통민요 배우기 재봉틀기초과정, 댄스교실, 북난타교실, 북춤교실(찾아가는교육)
서귀포시 서부지역	
안덕면	기타교실, 중국어교실, 이주여성 한국어교실, 난타교실, 한지공예
대정읍	카메라교실, 어르신 시조교실, 중국어교실, 모슬봉소리패민요교실, 추사체교실

·출처 :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내부자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어, 컴퓨터, 문학, 무용, 음악, 서예, 전통예술, 스포츠’ 등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예술 여건 분석 결과

- 정부에서는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등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통해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
 - 작은영화관은 100석 내외의 좌석(50석 규모 2개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수준의 시설이 있으면 개관이 가능하며, 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임.
 - 현재 극장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한 곳당 5억원 내외 지원함.
- 작은영화관 추진 현황을 보면 2014년 이전에 9개가 개관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추진 사업임.
- 2015년에는 21개 개관 계획이며, 여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18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3개가 포함됨.

<표 II-18> 작은영화관 개관 현황

구분	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광역특별회계 50%+지방비 50%)	지방자치단체 자체 추진(지방비)
2015년 개관 계획	21개	·상반기:인천 강화군, 강원 삼척시· 철원군·영월군, 전남 장흥 군·함평군, 충남 예산군·서 천군, 경남 남해군(9개) ·하반기:강원 정선군, 경북 양양군· 고령군, 경남 사천시·합천 군, 전남 해남군·광양시, 충 북 영동군, 울산울주군(9개)	강원 영월군, 전북 진안군·순창군(3개)
2014년 이전 개관	9개	-	전북 장수군·김제시· 임실군, 강원 홍천 군·화천군, 전북 고 창군·무주군·부안 군·완주군

·출처 : 『위클리 공감』(2015년 2월 2일자)

-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하고 있음.
- 어린이, 초등·중등, 대학생, 일반 등 세대와 계층별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초중고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토요·방학 문화학교' 확대
 - 소외아동 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 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대상 1인 1예능을 위한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정책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이 있음.
 - 소외계층 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은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소외지역 주민, 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 노령층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 정부는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으로 '문화수도' 프로젝트⁶⁾ 를 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문화수도'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화함.

6) 이 프로젝트는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있음. 이 위원회는 2014년 출범하였으며 2015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음. 매년 1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문화·예술 관련 공연, 축제, 심포지엄'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2016년 우리나라 첫 번째 문화수도로 경기도 시흥시가 선정되었음.(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kcoc.or.kr>), 국민일보 2015년 5월 1일자 기사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 정부의 문화격차 해소 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주지역 내 지역 간·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매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⁷⁾
-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 문화정책은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융성시대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음.⁸⁾
- 이에 따른 실천 전략은 ‘문화예술의 섬 환경 조성, 문화예술 및 창작 활동 지원 확대,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정하였음.
- 이 외에도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해당되는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 발전’이 있음.
- 2015년 세부추진 사업에는 ‘원도심 재생 사업, 제주문화의 글로벌화 추진,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사업, 제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어·제주학 육성 사업, 문화유산의 가치 확대 및 체계적 보존 정책’ 등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은 주로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및 향유 기회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읍면지역에 따라 문화격차 의식이 발생할 수 있음.
 -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차이가 있고, 동과 동, 마을과 마을에 따라서도 문화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이용 기회가 없는 주민, 이용 기회가 차단된 주민 간에도 문화격차 의식이 나타므로, 지역의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7) 이 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소외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특히 문화소외 지역인 ‘읍면지역, 도서벽지’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

8)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정책 부분은 ‘민선 6기 도정의 공약실천계획서’와 문화관광스포츠국의 ‘2015 주요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제시하였음.

- 다시 말하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시설에 따라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지역주민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개설과 개발이 부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이 나타날 수 있음.
 - 마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콘텐츠)이나 문화시설 운영을 비교하여 자신들의 거주지역에는 이런 대상들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가능함.
 - 이때 해당지역 주민들은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시설 간 정보 교류, 홍보를 통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Ⅲ.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해석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기회 확대 등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나. 조사 방법

1) 조사 설계 및 실시

- 모집단(Population)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거주 주민
- 표본추출방법 : 인구비례에 의한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 표본 크기(Sample size) : 361부
- 조사 방법 : 면접원에 의한 1:1개별면접조사
-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실사 기간 : 2015. 04. 08. ~ 04. 17.
- 조사장소 : 제주 읍면지역
- 조사기간 : 2015. 04. 08. ~ 04. 30.

2) 조사 내용

- 문화예술 관람 활동과 관련된 내용
 -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여부

-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여부
 -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여부
 - 문화예술 관람 활동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
 - 문화예술 관람 활동의 이유와 동기
 -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공동 참여자
 -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점
 - 거주하는 읍(면)지역에서 가장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 행사
 -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 문화예술 활동 관련 욕구 및 의식과 관련된 내용
- 문화예술 활동 관련 시설의 이용 경험과 향후 이용 의향
 -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 문화격차 의식과 관련된 내용
- 지역 간 문화격차의 의미
 - 읍면지역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울 및 수도권지역과 비교했을 때 문화기반시설, 공연 프로그램, 문화강습 및 강좌,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문화축제, 문화기부, 문학행사(시낭송 등), 전시예술, 전통예술,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에 있어서 차이 정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문화활동 여건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전반적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 문화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된 내용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거주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
 -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지 등
- 일반사항 : 성별, 연령, 직업, 최종 학력, 거주기간, 생활수준 정도 등

3) 자료 분석(Data Analysis)

-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과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14(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

2. 분석 결과

가. 인구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 361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 응답자 특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애월읍 61명(16.9%), 조천읍 43명(11.9%), 한림읍 42명(11.6%), 남원읍 38명(10.5%), 대정읍 37명(10.2%), 성산읍 33명(9.1%), 구좌읍 32명(8.9%), 표선면 24명(6.6%), 안덕면 22명(6.1%), 한경면 19명(5.3%), 추자면, 우도면이 각각 5명(1.4%)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 조사지역

구 분	빈도(명)	비율(%)
한경면	19	5.3
한림읍	42	11.6
애월읍	61	16.9
조천읍	43	11.9
구좌읍	32	8.9
추자면	5	1.4
우도면	5	1.4
대정읍	37	10.2
안덕면	22	6.1
남원읍	38	10.5
표선면	24	6.6
성산읍	33	9.1
합 계	361	100.0

○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190명(52.6%), 남성 171명(47.4%)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107명(29.6%), 30대 83명(23.0%), 50대 71명(19.7%), 20대 54명(15.0%), 60세 이상 46명(12.7%)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20년 이상 180명(49.9%), 1년~5년 미만 62명(17.2%), 15년~20년 미만 43명(11.9%), 5년~10년 미만 40명(11.1%), 1년 미만 19명(5.3%), 10년~15년 미만 17명(4.7%)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 포함) 200명(55.4%), 고졸 108명(29.9%), 중졸 이하 42명(11.6%), 대학원졸 이상 11명(3.0%)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직업별로는 농어민 84명(23.3%), 판매/서비스직 66명(18.3%), 사무 및 기술직 51명(14.1%), 자영업 42명(11.6%), 주부 36명(10.0%), 학생 26명(7.2%), 전문/자유직 19명(5.3%), 무직 8명(2.2%), 경영/관리직 9명(2.5%), 숙련공(생산/노무직) 4명(1.1%)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생활수준별로는 '중' 215명(59.6%), '중하' 83명(23.0%), '중상' 40명(11.1%), '하' 19명(5.3%), '상' 4명(1.1%)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1	47.4
	여성	190	52.6
연령	20대	54	15.0
	30대	83	23.0
	40대	107	29.6
	50대	71	19.7
	60세 이상	46	12.7

	구분	빈도(명)	비율(%)
거주기간	1년 미만	19	5.3
	1년~5년 미만	62	17.2
	5년~10년 미만	40	11.1
	10년~15년 미만	17	4.7
	15년~20년 미만	43	11.9
	20년 이상	180	49.9
학력	중졸 이하	42	11.6
	고졸	108	29.9
	대졸(전문대 포함)	200	55.4
	대학원졸 이상	11	3.0
직업	자영업	42	11.6
	판매/서비스직	66	18.3
	숙련공(생산/노무직)	4	1.1
	사무 및 기술직	51	14.1
	경영/관리직	9	2.5
	전문/자유직	19	5.3
	농어민	84	23.3
	학생	26	7.2
	주부	36	10.0
	무직	8	2.2
	기타	16	4.4
생활수준	하	19	5.3
	중하	83	23.0
	중	215	59.6
	중상	40	11.1
	상	4	1.1
합계		361	100.0

나. 문화예술 관람 활동

1) 지난 1년 동안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 지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없다’ 271명(75.1%), ‘있다’ 90명(24.9%)으로 나타남.

<표 Ⅲ-3> 지난 1년 동안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90	24.9
없다	271	75.1
합계	361	100.0

○ 인구학적 특성, 거주기간, 학력, 직업, 주관적 계층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표 Ⅲ-4> ~ <Ⅲ-8>).

<표 Ⅲ-4> 인구학적 특성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성별	남성	37 (21.6)	134 (78.4)	171 (100.0)	df=1 $\chi^2=1.88$
	여성	53 (27.9)	137 (72.1)	190 (100.0)	
	전체	90 (24.9)	271 (75.1)	361 (100.0)	
연령	20대	10 (18.5)	44 (81.5)	54 (100.0)	df=4 $\chi^2=8.75$
	30대	24 (28.9)	59 (71.1)	83 (100.0)	
	40대	33 (30.8)	74 (69.2)	107 (100.0)	
	50대	18 (25.4)	53 (74.6)	71 (100.0)	
	60대 이상	5 (10.9)	41 (89.1)	46 (100.0)	
	전체	90 (24.9)	271 (75.1)	361 (100.0)	

<표 III-5> 거주기간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거주 기간	1년 미만	5 (26.3)	14 (73.7)	19 (100.0)	df=5 $\chi^2=9.77$
	1년~5년 미만	20 (32.3)	42 (67.7)	62 (100.0)	
	5년~10년 미만	11 (27.5)	29 (72.5)	40 (100.0)	
	10년~15년 미만	5 (29.4)	12 (70.6)	17 (100.0)	
	15년~20년 미만	16 (37.2)	27 (62.8)	43 (100.0)	
	20년 이상	33 (18.3)	147 (81.7)	180 (100.0)	
	전체	90 (24.9)	271 (75.1)	361 (100.0)	

<표 III-6> 학력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학력	중졸 이하	7 (16.7)	35 (83.3)	42 (100.0)	df=3 $\chi^2=7.37$
	고졸	24 (22.2)	84 (77.8)	108 (100.0)	
	대졸(전문대포함)	53 (26.5)	147 (73.5)	200 (100.0)	
	대학원졸 이상	6 (54.5)	5 (45.5)	11 (100.0)	
	전체	90 (24.9)	271 (75.1)	361 (100.0)	

<표 III-7> 직업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직업	자영업	8 (19.0)	34 (81.0)	42 (100.0)	df=10 $\chi^2=3.38$
	판매/서비스직	16 (24.2)	50 (75.8)	66 (100.0)	
	숙련공(생산/노무직)	1 (25.0)	3 (75.0)	4 (100.0)	
	사무 및 기술직	14 (27.5)	37 (72.5)	51 (100.0)	
	경영/관리직	3 (33.3)	6 (66.7)	9 (100.0)	
	전문/자유직	7 (36.8)	12 (63.2)	19 (100.0)	
	농어민	19 (22.6)	65 (77.4)	84 (100.0)	
	학생	6 (23.1)	20 (76.9)	26 (100.0)	
	주부	9 (25.0)	27 (75.0)	36 (100.0)	
	무직	2 (25.0)	6 (75.0)	8 (100.0)	
	기타	5 (31.3)	11 (68.8)	16 (100.0)	
	전체	90 (24.9)	271 (75.1)	361 (100.0)	

<표 III-8> 주관적 계층별 거주지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주관적 계층	아주 못사는 편	3 (15.8)	16 (84.2)	19 (100.0)	df=4 $\chi^2=6.05$
	대체로 못사는 편	14 (16.9)	69 (83.1)	83 (100.0)	
	보통	63 (29.3)	152 (70.7)	215 (100.0)	
	대체로 잘사는 편	9 (22.5)	31 (77.5)	40 (100.0)	
	매우 잘사는 편	1 (25.0)	3 (75.0)	4 (100.0)	
	전체	90 (24.9)	271 (75.1)	361 (100.0)	

2) 지난 1년 동안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 지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있다 219명(60.7%), 없다 142명(39.3%)으로 나타남.

<표 III-9>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219	60.7
없다	142	39.3
합계	361	100.0

- 인구학적 특성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은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연령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50대 이상의 고령층에 비해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I-10> 인구학적 특성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성별	남성	99 (57.9)	72 (42.1)	171 (100.0)	df=1 $\chi^2=1.05$
	여성	120 (63.2)	70 (36.8)	190 (100.0)	
	전체	219 (60.7)	142 (39.3)	361 (100.0)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연령	20대	36 (66.7)	18 (33.3)	54 (100.0)	df=4 $\chi^2=30.17^{***}$
	30대	59 (71.1)	24 (28.9)	83 (100.0)	
	40대	72 (67.3)	35 (32.7)	107 (100.0)	
	50대	40 (56.3)	31 (43.7)	71 (100.0)	
	60대 이상	12 (26.1)	34 (73.9)	46 (100.0)	
	전체	219 (60.7)	142 (39.3)	361 (100.0)	

***p<.001

○ 거주기간 별로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5년 이상 오래 거주한 사람들보다 15년 미만 거주한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 거주기간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거주기간	1년 미만	16 (84.2)	3 (15.8)	19 (100.0)	df=5 $\chi^2=13.32^*$
	1년~5년 미만	43 (69.4)	19 (30.6)	62 (100.0)	
	5년~10년 미만	27 (67.5)	13 (32.5)	40 (100.0)	
	10년~15년 미만	12 (70.6)	5 (29.4)	17 (100.0)	
	15년~20년 미만	27 (62.8)	16 (37.2)	43 (100.0)	
	20년 이상	94 (52.2)	86 (47.8)	180 (100.0)	
	전체	219 (60.7)	142 (39.3)	361 (100.0)	

*p<.05

○ 학력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사람들보다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활동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2> 학력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학력	중졸 이하	12 (28.6)	30 (71.4)	42 (100.0)	df=3 $\chi^2=26.74^{***}$
	고졸	62 (57.4)	46 (42.6)	108 (100.0)	
	대졸(전문대포함)	135 (67.5)	65 (32.5)	200 (100.0)	
	대학원졸 이상	10 (90.9)	1 (9.1)	11 (100.0)	
	전체	219 (60.7)	142 (39.3)	361 (100.0)	

*** $p < .001$

○ 직업별로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무직 및 기술직, 전문/자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3> 직업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직업	자영업	24 (57.1)	18 (42.9)	42 (100.0)	df=10 $\chi^2=20.21^*$
	판매/서비스직	40 (60.6)	26 (39.4)	66 (100.0)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직업	숙련공(생산/노무직)	2 (50.0)	2 (50.0)	4 (100.0)	df=10 $\chi^2=20.21^*$
	사무 및 기술직	37 (72.5)	14 (27.5)	51 (100.0)	
	경영/관리직	5 (55.6)	4 (44.4)	9 (100.0)	
	전문/자유직	17 (89.5)	2 (10.5)	19 (100.0)	
	농어민	39 (46.4)	45 (53.6)	84 (100.0)	
	학생	16 (61.5)	10 (38.5)	26 (100.0)	
	주부	21 (58.3)	15 (41.7)	36 (100.0)	
	무직	5 (62.5)	3 (37.5)	8 (100.0)	
	기타	13 (81.3)	3 (18.8)	16 (100.0)	
	전체	219 (60.7)	142 (39.3)	361 (100.0)	

*p<.05

○ 주관적 계층별로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자신의 생활수준이 보통이거나 대체로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4> 주관적 계층별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주관적 계층	아주 못사는 편	6 (31.6)	13 (68.4)	19 (100.0)	df=4 $\chi^2=13.84^{**}$
	대체로 못사는 편	42 (50.6)	41 (49.4)	83 (100.0)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주관적 계층	보통	143 (66.5)	72 (33.5)	215 (100.0)	df=4 $\chi^2=13.84^{**}$
	대체로 잘사는 편	26 (65.0)	14 (35.0)	40 (100.0)	
	매우 잘사는 편	2 (50.0)	2 (50.0)	4 (100.0)	
	전체	219 (60.7)	142 (39.3)	361 (100.0)	

**p<.01

- 지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지역으로는 제주시 동지역이 176명(80.4%), 서귀포시 동지역이 43명(19.6%)으로 나타남.

<표 III-15> 거주지 이외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시 동지역	176	80.4
서귀포시 동지역	43	19.6
합계	219	100.0

3)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없다’ 261명(72.3%), ‘있다’ 100명(27.7%)으로 나타남.

<표 III-16>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100	27.7
없다	261	72.3
합계	361	100.0

○ 성별로는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경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연령별로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이 제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I-17> 인구학적 특성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성별	남성	53 (31.0)	118 (69.0)	171 (100.0)	df=1 $\chi^2=1.76$
	여성	47 (24.7)	143 (75.3)	190 (100.0)	
	전체	100 (27.7)	261 (72.3)	361 (100.0)	
연령	20대	19 (35.2)	35 (64.8)	54 (100.0)	df=4 $\chi^2=11.34^*$
	30대	28 (33.7)	55 (66.3)	83 (100.0)	
	40대	29 (27.1)	78 (72.9)	107 (100.0)	
	50대	20 (28.2)	51 (71.8)	71 (100.0)	
	60대 이상	4 (8.7)	42 (91.3)	46 (100.0)	
	전체	100 (27.7)	261 (72.3)	361 (100.0)	

* $p < .05$

○ 거주기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0년에서 20년 미만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들이 제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8> 거주기간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거주 기간	1년 미만	7 (36.8)	12 (63.2)	19 (100.0)	df=5 $\chi^2=13.11^*$
	1년~5년 미만	21 (33.9)	41 (66.1)	62 (100.0)	
	5년~10년 미만	13 (32.5)	27 (67.5)	40 (100.0)	
	10년~15년 미만	7 (41.2)	10 (58.8)	17 (100.0)	
	15년~20년 미만	17 (39.5)	26 (60.5)	43 (100.0)	
	20년 이상	35 (19.4)	145 (80.6)	180 (100.0)	
	전체	100 (27.7)	261 (72.3)	361 (100)	

*p<.05

- 학력별로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제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9> 학력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학력	중졸 이하	7 (16.7)	35 (83.3)	42 (100.0)	df=3 $\chi^2=11.71^{**}$
	고졸	22 (20.4)	86 (79.6)	108 (100.0)	
	대졸(전문대포함)	65 (32.5)	135 (67.5)	200 (100.0)	
	대학원졸 이상	6 (54.5)	5 (45.5)	11 (100.0)	
	전체	100 (27.7)	261 (72.3)	361 (100.0)	

*p<.01

- 직업별, 주관적 계층별로는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표 III-20> 직업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직업	자영업	12 (28.6)	30 (71.4)	42 (100.0)	df=10 $\chi^2=14.22$
	판매/서비스직	16 (24.2)	50 (75.8)	66 (100.0)	
	숙련공(생산/노무직)	1 (25.0)	3 (75.0)	4 (100.0)	
	사무 및 기술직	20 (39.2)	31 (60.8)	51 (100.0)	
	경영/관리직	4 (44.4)	5 (55.6)	9 (100.0)	
	전문/자유직	7 (36.8)	12 (63.2)	19 (100.0)	
	농어민	18 (21.4)	66 (78.6)	84 (100.0)	
	학생	9 (34.6)	17 (65.4)	26 (100.0)	
	주부	4 (11.1)	32 (88.9)	36 (100.0)	
	무직	3 (37.5)	5 (62.5)	8 (100.0)	
	기타	6 (37.5)	10 (62.5)	16 (100.0)	
	전체	100 (27.7)	261 (72.3)	361 (100.0)	

<표 III-21> 주관적 계층별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통계치
주관적 계층	아주 못사는 편	5 (26.3)	14 (73.7)	19 (100.0)	df=4 $\chi^2=2.21$
	대체로 못사는 편	19 (22.9)	64 (77.1)	83 (100.0)	
	보통	62 (28.8)	153 (71.2)	215 (100.0)	
	대체로 잘사는 편	12 (30.3)	28 (70.0)	40 (100.0)	
	매우 잘사는 편	2 (50.0)	2 (50.0)	4 (100.0)	
	전체	100 (27.7)	261 (72.3)	361 (100.0)	

-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지역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82명(82.0%), 광역시지역(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8명(8.0%), 도시지역(전주, 강릉, 춘천 등) 4명(4.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2>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 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서울 및 수도권지역	82	82.0
광역시지역(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8	8.0
도시지역(전주, 강릉, 춘천 등)	4	4.0
기타	6	6.0
합계	100	100.0

4)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람 활동 중 만족스러운 것(콘텐츠)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람 활동 중 가장 만족스러운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화 관람 149명(25.4%),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등) 90

명(15.3%),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71명(12.1%),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56명(9.5%), 박물관 관람 53명(9.0%),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등) 38명(6.5%),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등) 25명(4.3%), 무용공연 관람 11명(1.9%), 문학행사(시낭송 등) 관람 6명(1.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3>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람 활동 중 만족스러운 것(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문학행사(시낭송 등) 관람	6	1.0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56	9.5
박물관 관람	53	9.0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등)	38	6.5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등)	25	4.3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71	12.1
무용공연 관람	11	1.9
영화 관람	149	25.4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등)	90	15.3
해당사항 없음	87	14.8
기타	1	0.2
합계	587	100.0

5) 문화예술 관람 활동 이유

-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동기로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126명(34.9%), 재미있을 것 같아서 73명(20.2%),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47명(13.0%), 자녀교육을 위해 25명(6.9%), 교양을 쌓기 위해서 23명(6.4%), 초대권이 생겨서/무료여서 15명(4.2%), 자기가 하는 취미분야 실력을 쌓기 위해서 7명(1.9%)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4> 문화예술 관람 활동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교양을 쌓기 위해서	23	6.4
재미있을 것 같아서	73	20.2
자녀교육을 위해	25	6.9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47	13.0
기분 전환을 위해서	126	34.9
자기가 하는 취미분야 실력을 쌓기 위해서	7	1.9
초대권이 생겨서/무료여서	15	4.2
해당사항 없음	42	11.6
기타	3	0.8
합계	361	100.0

6)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공동 참여자

-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함께 하는 주된 대상으로는 가족·친척과 함께 170명(47.1%), 친구와 함께 108명(29.9%), 혼자 30명(8.3%), 동호회원과 함께와 직장 동료와 함께가 각각 8명(2.2%)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5>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공동 참여자

구분	빈도(명)	비율(%)
혼자	30	8.3
가족·친척과 함께	170	47.1
친구와 함께	108	29.9
동호회원과 함께	8	2.2
직장 동료와 함께	8	2.2
해당사항 없음	37	10.2
합계	361	100.0

7)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점

-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과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이 각각 91명(25.2%), 정보 부족 58명(16.1%), 비용부담 50명(13.9%), 이용시간대의 제한 32명(8.9%), 시설 불편(낙후됨) 22명(6.1%), 환경의 불결함과 티켓 구입 불편이 각각 5명(1.4%)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6>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91	25.2
시설 불편(낙후됨)	22	6.1
환경의 불결함	5	1.4
정보 부족	58	16.1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91	25.2
이용시간대의 제한	32	8.9
비용부담	50	13.9
티켓 구입 불편	5	1.4
기타	7	1.9
합계	361	100.0

8) 거주지에서 가장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 행사

- 거주하는 읍(면)지역에서 가장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 행사로는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등) 140명(20.7%), 영화 관람 136명(20.1%),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130명(19.3%),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84명(12.4%),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등) 82명(12.1%),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등) 43명(6.4%), 박물관 관람 25명(3.7%), 문학행사(시낭송 등) 관람 17명(2.5%), 무용공연 관람 16명(2.4%)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7> 거주지에서 가장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 행사(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문학행사(시낭송 등) 관람	17	2.5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84	12.4
박물관 관람	25	3.7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등)	82	12.1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등)	43	6.4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130	19.3
무용공연 관람	16	2.4
영화 관람	136	20.1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등)	140	20.7
기타	2	0.3
합계	675	100.0

9)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고려사항

-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비용 130명(36.0%), 교통편의 및 접근성 103명(28.5%), 문화예술 활동 내용 95명(26.3%), 주위 사람들의 평가 24명(6.6%), 비평가들의 평가 5명(1.4%)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8> 문화예술 관람 활동 시 고려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문화예술 활동 내용	95	26.3
비용	130	36.0
교통편의 및 접근성	103	28.5
주위 사람들의 평가	24	6.6
비평가들의 평가	5	1.4
기타	4	1.1
합계	361	100.0

다. 문화예술 활동 관련 욕구 및 의식

1) 시설별 이용 경험

- 다음의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 관련 응답을 보면 청소년 복지시설(70.9%), 문화원(68.1%), 경로당(67.6%), 종합사회복지관(62.9%), 미술관(59.8%)은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영화관(67.9%), 마을회관(56.5%),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과 사설 문화센터(마트 등)(56.0%), 박물관·공연장·주민체육시설(54.3%), 전시관(52.9%), 주민자치센터(5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9> 시설별 이용 경험

구분	이용한 적 없다		이용한 적 있다	
	명	%	명	%
마을회관	157	43.5	204	56.5
주민자치센터	173	47.9	188	52.1
청소년복지시설	256	70.9	105	29.1
문화원	246	68.1	115	31.9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159	44.0	202	56.0
박물관	165	45.7	196	54.3
미술관	216	59.8	145	40.2
영화관	116	32.1	245	67.9
공연장	165	45.7	196	54.3
전시관	170	47.1	191	52.9
사설 문화센터(마트 등)	159	44.0	202	56.0
종합사회복지관	227	62.9	134	37.1
경로당	244	67.6	117	32.4
주민체육시설	165	45.7	196	54.3

- 다음의 시설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라는 응답을 제외하면, 모두 이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영화관 277명(76.7%), 공연장 262명(72.6%), 전시관 233명(64.5%), 박물관 225명(62.3%), 주민체육시설 224명(62.0%),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217명(60.1%), 사설 문화센터(마트 등) 214명(59.3%), 주민자치센터 204명(56.5%), 미술관 202명(56.0%), 마을회관 178명(49.3%), 종합사회복지관 167명(46.3%), 문화원 136명(37.7%), 경로당 125명(34.6%), 청소년복지시설 100명(2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30> 시설별 향후 이용 의향

구분	잘 모르겠다		앞으로 이용 안 한다		앞으로 이용한다	
	명	%	명	%	명	%
마을회관	163	45.2	20	5.5	178	49.3
주민자치센터	140	38.8	17	4.7	204	56.5
청소년복지시설	208	57.6	53	14.7	100	27.7
문화원	203	56.2	22	6.1	136	37.7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116	32.1	28	7.8	217	60.1
박물관	127	35.2	9	2.5	225	62.3
미술관	145	40.2	14	3.9	202	56.0
영화관	70	19.4	14	3.9	277	76.7
공연장	87	24.1	12	3.3	262	72.6
전시관	118	32.7	10	2.8	233	64.5
사설 문화센터(마트 등)	129	35.7	18	5.0	214	59.3
종합사회복지관	167	46.3	27	7.5	167	46.3
경로당	190	52.6	46	12.7	125	34.6
주민체육시설	116	32.1	21	5.8	224	62.0

- 향후 이용 의향이 높은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별 영화관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연령별 영화관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20대~50대 연령층의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1> 인구학적 특성별 영화관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성별	남성	32 (18.7)	5 (2.9)	134 (78.4)	171 (100.0)	df=2 $\chi^2=.95$
	여성	38 (20.0)	9 (4.7)	143 (75.3)	190 (100.0)	
	전체	70 (19.4)	14 (3.9)	277 (76.7)	361 (100.0)	
연령	20대	11 (20.4)	1 (1.9)	42 (77.8)	54 (100.0)	df=8 $\chi^2=21.88^{**}$
	30대	8 (9.6)	3 (3.6)	72 (86.7)	83 (100.0)	
	40대	19 (17.8)	4 (3.7)	84 (78.5)	107 (100.0)	
	50대	16 (22.5)	1 (1.4)	54 (76.1)	71 (100.0)	
	60대 이상	16 (34.8)	5 (10.9)	25 (54.3)	46 (100.0)	
	전체	70 (19.4)	14 (3.9)	277 (76.7)	361 (100.0)	

** $p < .01$

- 거주기간별 영화관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III-32> 거주기간별 영화관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거주 기간	1년 미만	3 (15.8)	0 (0.0)	16 (84.2)	19 (100.0)	df=10 $\chi^2=11.96$
	1년~5년 미만	13 (21.0)	4 (6.5)	45 (72.6)	62 (100.0)	
	5년~10년 미만	10 (25.0)	4 (10.0)	26 (65.0)	40 (100.0)	
	10년~15년 미만	2 (11.8)	0 (0.0)	15 (88.2)	17 (100.0)	
	15년~20년 미만	6 (14.0)	0 (0.0)	37 (86.0)	43 (100.0)	
	20년 이상	36 (20.0)	6 (3.3)	138 (76.7)	180 (100.0)	
	전체	70 (19.4)	14 (3.9)	277 (76.7)	361 (100.0)	

- 학력별 영화관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층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층에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의 학력층에서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3> 학력별 영화관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학력	중졸 이하	17 (40.5)	5 (11.9)	20 (47.6)	42 (100.0)	df=6 $\chi^2=30.17^{***}$
	고졸	24 (22.2)	1 (0.9)	83 (76.9)	108 (100.0)	
	대졸(전문대포함)	26 (13.0)	8 (4.0)	166 (83.0)	200 (100.0)	
	대학원졸 이상	3 (27.3)	0 (0.0)	8 (72.7)	11 (100.0)	
	전체	70 (19.4)	14 (3.9)	277 (76.7)	361 (100.0)	

*** $p<.001$

○ 직업별 영화관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사무직 및 기술직,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향후 영화관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4> 직업별 영화관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직업	자영업	6 (14.3)	1 (2.4)	35 (83.3)	42 (100.0)	df=20 $\chi^2=40.01^{**}$
	판매/서비스직	16 (24.2)	6 (9.1)	44 (66.7)	66 (100.0)	
	숙련공(생산/노무직)	1 (25.0)	0 (0.0)	3 (75.0)	4 (100.0)	
	사무 및 기술직	2 (3.9)	0 (0.0)	49 (96.1)	51 (100.0)	
	경영/관리직	0 (0.0)	1 (11.1)	8 (88.9)	9 (100.0)	
	전문/자유직	3 (15.8)	0 (0.0)	16 (84.2)	19 (100.0)	
	농어민	23 (27.4)	5 (6.0)	56 (66.7)	84 (100.0)	
	학생	6 (16.7)	1 (3.8)	19 (73.1)	26 (100.0)	
	주부	5 (62.5)	0 (0.0)	30 (83.3)	36 (100.0)	
	무직	2 (12.5)	0 (0.0)	3 (37.5)	8 (100.0)	
	기타	2 (12.5)	0 (0.0)	14 (87.5)	16 (100.0)	
	전체	70 (19.4)	14 (3.9)	277 (76.7)	361 (100.0)	

** $p < .01$

- 주관적 계층별 영화관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자신의 생활수준이 못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보통 이상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화관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III-35> 주관적 계층별 영화관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주관적 계층	아주 못사는 편	7 (36.8)	3 (15.8)	9 (47.4)	19 (100.0)	df=8 $\chi^2=25.47^{***}$
	대체로 못사는 편	22 (26.5)	0 (0.0)	61 (73.5)	83 (100.0)	
	보통	36 (16.7)	9 (4.2)	170 (79.1)	215 (100.0)	
	대체로 잘사는 편	5 (12.5)	1 (2.5)	34 (85.0)	40 (100.0)	
	매우 잘사는 편	0 (0.0)	1 (25.0)	3 (75.0)	4 (100.0)	
	전체	70 (19.4)	14 (3.9)	277 (76.7)	361 (100.0)	

*** $p < .001$

- 성별 공연장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연령별 공연장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40대 연령층에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0대 연령층의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6> 인구학적 특성별 공연장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성별	남성	48 (28.1)	4 (2.3)	119 (69.6)	171 (100.0)	df=2 $\chi^2=3.47$
	여성	39 (20.5)	8 (4.2)	143 (75.3)	143 (75.3)	
	전체	87 (24.1)	12 (3.3)	262 (72.6)	262 (72.6)	
연령	20대	17 (31.5)	2 (3.7)	35 (64.8)	54 (100.0)	df=8 $\chi^2=19.74^*$
	30대	9 (10.8)	4 (4.8)	70 (84.3)	83 (100.0)	
	40대	21 (19.6)	3 (2.8)	83 (77.6)	107 (100.0)	
	50대	22 (31.0)	1 (1.4)	48 (67.6)	71 (100.0)	
	60대 이상	18 (39.1)	2 (4.3)	26 (56.5)	46 (100.0)	
	전체	87 (24.1)	12 (3.3)	262 (72.6)	361 (100.0)	

*p<.05

○ 거주기간별 공연장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15~20년 미만 동안 현재 거주하는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연장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7> 거주기간별 공연장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거주 기간	1년 미만	6 (31.6)	0 (0.0)	13 (68.4)	19 (100.0)	df=10 $\chi^2=18.80^*$
	1년~5년 미만	14 (22.6)	6 (9.7)	42 (67.7)	62 (100.0)	
	5년~10년 미만	12 (30.0)	3 (7.5)	25 (62.5)	40 (100.0)	
	10년~15년 미만	5 (29.4)	0 (0.0)	12 (70.6)	17 (100.0)	
	15년~20년 미만	6 (14.0)	0 (0.0)	37 (86.0)	43 (100.0)	
	20년 이상	44 (24.4)	3 (1.7)	133 (73.9)	180 (100.0)	
	전체	87 (24.1)	12 (3.3)	262 (72.6)	361 (100.0)	

*p<.05

- 학력별 공연장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표 Ⅲ-38> 학력별 공연장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학력	중졸 이하	16 (38.1)	2 (4.8)	24 (57.1)	42 (100.0)	df=6 $\chi^2=10.19$
	고졸	31 (28.7)	3 (2.8)	74 (68.5)	108 (100.0)	
	대졸(전문대포함)	37 (18.5)	7 (3.5)	156 (78.0)	200 (100.0)	
	대학원졸 이상	3 (27.3)	0 (0.0)	8 (72.7)	11 (100.0)	
	전체	87 (24.1)	12 (3.3)	262 (72.6)	361 (100.0)	

○ 직업별 공연장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사무직 및 기술직, 주부, 전문/자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연장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9> 직업별 공연장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직업	자영업	9 (21.4)	1 (2.4)	32 (76.2)	42 (100.0)	df=20 $\chi^2=38.06^{**}$
	판매/서비스직	19 (28.8)	6 (9.1)	41 (62.1)	66 (100.0)	
	숙련공(생산/노무직)	1 (25.0)	0 (0.0)	3 (75.0)	4 (100.0)	
	사무 및 기술직	4 (7.8)	0 (0.0)	47 (92.2)	51 (100.0)	
	경영/관리직	2 (22.2)	1 (11.1)	6 (66.7)	9 (100.0)	
	전문/자유직	3 (15.8)	0 (0.0)	16 (84.2)	19 (100.0)	
	농어민	27 (32.1)	2 (2.4)	55 (65.5)	84 (100.0)	
	학생	8 (30.8)	2 (7.7)	16 (61.5)	26 (100.0)	
	주부	5 (13.9)	0 (0.0)	31 (86.1)	36 (100.0)	
	무직	5 (62.5)	0 (0.0)	3 (37.5)	8 (100.0)	
	기타	4 (25.4)	0 (0.0)	12 (75.0)	16 (100.0)	
	전체	87 (24.1)	12 (3.3)	262 (72.6)	361 (100.0)	

** $p < .01$

- 주관적 계층별 공연장 이용 의향에 있어서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생활수준이 대체로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연장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40> 주관적 계층별 공연장 이용 의향

(단위 : 명, %)

구분		잘 모름	이용안함	이용	합계	통계치
주관적 계층	아주 못사는 편	9 (47.4)	1 (5.3)	9 (47.4)	19 (100.0)	df=8 $\chi^2=15.91^*$
	대체로 못사는 편	23 (27.7)	1 (1.2)	59 (71.1)	83 (100.0)	
	보통	48 (22.3)	8 (3.7)	159 (74.0)	215 (100.0)	
	대체로 잘사는 편	7 (17.5)	1 (2.5)	32 (80.0)	40 (100.0)	
	매우 잘사는 편	0 (0.0)	1 (25.0)	3 (75.0)	4 (100.0)	
	전체	87 (24.1)	12 (3.3)	262 (72.6)	361 (100.0)	

*** $p < .05$

2)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문화시설을 짓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평균: 2.31)'와 '문화예술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내야 한다(평균: 2.79)'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뮤지컬을 보고 싶다(평균: 3.85), 처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평균: 3.59), 우리 사

회는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평균: 3.55),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평균: 3.52), 남들처럼 문화를 즐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평균: 3.42), 직장을 고를 때 연봉보다는 여유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평균: 3.31), 내 아이가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것을 찬성한다(평균: 3.25), 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해야 한다(평균: 3.1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투자는 나 자신의 직업적 성공에 도움을 줄 것이다(평균: 3.18), 나는 예술이 화제로 등장하는 자리가 좋다(평균: 3.14)' 등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를 묻는 총 12개 문항의 평균을 합한 값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6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봄.

<표 III-41>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나는 예술이 화제로 등장하는 자리가 좋다	16	4.4	61	16.9	159	44.0	105	29.1	20	5.5	3.14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뮤지컬을 보고 싶다	12	3.3	29	8.0	73	20.2	134	37.1	113	31.3	3.85
더 많은 문화시설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83	23.0	126	34.9	112	31.0	37	10.2	3	0.8	2.31
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23	6.4	53	14.7	142	39.3	121	33.5	22	6.1	3.18
문화예술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내야 한다	44	12.2	80	22.2	155	42.9	72	19.9	10	2.8	2.7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처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	9	2.5	43	11.9	107	29.6	130	36.0	72	19.9	3.59
남들처럼 문화를 즐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9	5.3	54	15.0	106	29.4	120	33.2	62	17.2	3.42
내 아이가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것을 찬성한다	23	6.4	62	17.2	128	35.5	97	26.9	51	14.1	3.25
공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8	2.2	43	11.9	133	36.8	107	29.6	70	19.4	3.5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투자는 내 자신의 직업적 성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22	6.1	53	14.7	159	44.0	92	25.5	35	9.7	3.18
우리 사회는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14	3.9	42	11.6	96	26.6	151	41.8	58	16.1	3.55
직장을 고를 때 연봉보다는 여유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17	4.7	61	16.9	124	34.3	110	30.5	49	13.6	3.31

라. 문화격차 의식

1)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인식

- ‘지역 간 문화격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역 간 문화수준의 차이 87명(24.1%), 문화활동 기회의 차이 80명(22.2%),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의 차이 63명(17.5%), 지역 간 문화 관련 예산 투자의 차이 61명(16.9%), 지역 간 문화예술인의 양적(인원) 차이 27명(7.5%), 지역 간 문화 관련 자원의 차이 19명(5.3%)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42>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 간 문화수준의 차이	87	24.1
지역 간 문화예술인의 양적(인원) 차이	27	7.5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의 차이	63	17.5
지역 간 문화 관련 예산 투자의 차이	61	16.9
지역 간 문화 관련 자원의 차이	19	5.3
문화활동 기회의 차이	80	22.2
기타	3	0.8
잘 모르겠다	21	5.8
합계	361	100.0

2)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과 비교

- 거주하는 읍(면)지역과 제주시 동지역을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공연 프로그램의 차이(평균: 3.78), 문화기반시설의 차이(평균: 3.73), 전시예술의 차이(평균: 3.72), 문화기부의 차이(평균: 3.67), 문학행사(시낭송 등)의 차이(평균: 3.66),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의 차이(평균: 3.64),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차이(평균: 3.62), 문화강습 및 강좌의 차이(평균: 3.61), 전통예술의 차이(평균: 3.56), 문화축제의 차이(평균: 3.5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43> 거주 지역과 제주시 동지역의 비교

구분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문화기반시설의 차이	3	0.8	16	4.4	97	26.9	204	56.5	41	11.4	3.73
공연 프로그램의 차이	1	0.3	15	4.2	104	28.8	185	51.2	56	15.5	3.78
문화강습 및 강좌의 차이	1	0.3	24	6.6	129	35.7	165	45.7	42	11.6	3.61

구분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차이	2	0.6	22	6.1	128	35.5	168	46.5	41	11.4	3.62
문화축제의 차이	6	1.7	28	7.8	132	36.6	169	46.8	26	7.2	3.50
문화기부의 차이	1	0.3	20	5.5	130	36.0	156	43.2	54	15.0	3.67
문학행사(시낭송 등)의 차이	2	0.6	20	5.5	125	34.6	163	45.2	51	14.1	3.66
전시예술의 차이	1	0.3	18	5.0	120	33.2	164	45.4	58	16.1	3.72
전통예술의 차이	5	1.4	23	6.4	136	37.7	158	43.8	39	10.8	3.56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의 차이	2	0.6	21	5.8	130	36.0	159	44.0	49	13.6	3.64

○ 거주하는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을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문화기반시설의 차이(평균: 3.54), 공연 프로그램의 차이(평균: 3.51), 전시예술의 차이(평균: 3.47), 문학행사(시낭송 등)의 차이와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의 차이(평균: 3.46), 문화기부의 차이(평균: 3.45), 문화강습 및 강좌의 차이(평균: 3.42), 전통예술의 차이(평균: 3.40), 문화축제의 차이(평균: 3.39),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차이(평균: 3.38)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44> 거주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비교

구분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문화기반시설의 차이	2	0.6	18	5.0	153	42.4	159	44.0	29	8.0	3.54
공연 프로그램의 차이	1	0.3	18	5.0	166	46.0	147	40.7	29	8.0	3.51
문화강습 및 강좌의 차이	2	0.6	28	7.8	175	48.5	129	35.7	27	7.5	3.42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차이	2	0.6	33	9.1	171	47.4	135	37.4	20	5.5	3.38

구분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문화축제의 차이	6	1.7	28	7.8	165	45.7	142	39.3	20	5.5	3.39
문화기부의 차이	7	1.9	20	5.5	161	44.6	146	40.4	27	7.5	3.45
문학행사(시낭송 등)의 차이	3	0.8	26	7.2	161	44.6	143	39.6	28	7.8	3.46
전시예술의 차이	6	1.7	27	7.5	152	2.1	140	38.8	36	10.0	3.47
전통예술의 차이	9	2.5	28	7.8	161	44.6	137	38.0	26	7.2	3.40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의 차이	7	1.9	20	5.5	164	45.4	138	38.2	32	8.9	3.46

○ 거주하는 읍(면)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비교했을 때 모든 항목에서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보다 심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공연 프로그램의 차이(평균: 4.37), 문화기반시설의 차이(평균: 4.36), 문화강습 및 강좌의 차이(평균: 4.31), 전시예술의 차이(평균: 4.30),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차이(평균: 4.29), 문학행사(시낭송 등)의 차이(평균: 4.28), 문화기부의 차이(평균: 4.24), 문화축제의 차이(평균: 4.23),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의 차이(평균: 4.20), 전통예술의 차이(평균: 4.17)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45> 거주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비교

구분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문화기반시설의 차이	2	0.6	7	1.9	29	8.0	144	39.9	179	49.6	4.36
공연 프로그램의 차이	1	0.3	6	1.7	41	11.4	125	34.6	188	52.1	4.37
문화강습 및 강좌의 차이	2	0.6	6	1.7	37	10.2	149	41.3	167	46.3	4.31

구분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차이	-	-	5	1.4	52	14.4	137	38.0	167	46.3	4.29
문화축제의 차이	4	1.1	10	2.8	52	14.4	127	35.2	168	45.5	4.23
문화기부의 차이	3	0.8	15	4.2	48	13.3	122	33.8	173	47.9	4.24
문학행사(시낭송 등)의 차이	2	0.6	7	1.9	51	14.1	129	35.7	172	47.6	4.28
전시예술의 차이	3	0.8	10	2.8	42	11.6	129	35.7	177	49.0	4.30
전통예술의 차이	2	0.6	16	4.4	59	16.3	126	34.9	158	43.8	4.17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의 차이	6	1.7	12	3.3	54	15.0	122	33.8	167	46.3	4.20

3)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여건이 잘 갖추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284명(78.7%), ‘잘 모르겠다’ 65명(18.0%), ‘잘 갖추어져 있다’ 12명(3.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현재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Ⅲ-46>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구분	빈도(명)	비율(%)
잘 갖춰져 있다	12	3.3
잘 갖춰져 있지 않다	284	78.7
잘 모르겠다	65	18.0
합계	361	100.0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문화기반시설 부족 94명(33.1%), 문화공간 부족 61명(21.5%), 문화 관련 프로그램 부족 59명(20.8%), 문화 관련 예산 부족 38명(13.4%),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 부족 14명(4.9%), 문화예술 인력 부족 12명(4.2%)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47>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문화기반시설 부족	94	33.1
문화공간 부족	61	21.5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 부족	14	4.9
문화 관련 예산 부족	38	13.4
문화 관련 프로그램 부족	59	20.8
문화예술 인력 부족	12	4.2
기타	6	2.1
합계	284	100.0

4)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

-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불만족 하는 편 218명(60.7%), 보통 134명(37.3%), 만족하는 편에 7명(1.9%)이 응답하고 있어서 대부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은 5점 만점에 2.33점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표 III-48>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
매우 불만족	31	8.6	2.33
불만족	187	52.1	
보통	134	37.3	
만족	7	1.9	
매우 만족	-	-	
합계	359	100.0	

마. 문화격차 해소 방안

1)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제주의 읍면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102명(28.3%), 문화공간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 91명(25.2%), 읍면지역의 문화 관련 보조금 지원 확대 52명(14.4%), 문화부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45명(12.5%), 공공시설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37명(10.2%), 지역 예술인의 지원 및 육성 29명(8.0%)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49>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구분	빈도(명)	비율(%)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102	28.3
문화공간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	91	25.2
지역 예술인의 지원 및 육성	29	8.0
읍(면)지역의 문화 관련 보조금 지원 확대	52	14.4
문화부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45	12.5
공공시설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37	10.2
기타	5	1.4
합계	361	100.0

2)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 제주도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공연장 162명(20.3%), 영화관 122명(15.3%), 문화원 76명(9.5%), 전시관 67명(8.4%), 주민체육시설 57명(7.1%), 주민자치센터 51명(6.4%), 미술관 48명(6.0%), 사설 문화센터(마트 등) 47명(5.9%), 박물관 41명(5.1%), 청소년복지시설 38명(4.8%),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34명(4.3%), 종합사회복지관 31명(3.9%), 경로당 13명(1.6%), 마을회관 12명(1.5%)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50>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회관	12	1.5
주민자치센터	51	6.4
청소년복지시설	38	4.8
문화원	76	9.5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34	4.3
박물관	41	5.1
미술관	48	6.0
영화관	122	15.3
공연장	162	20.3
전시관	67	8.4
사설 문화센터(마트 등)	47	5.9
종합사회복지관	31	3.9
경로당	13	1.6
주민체육시설	57	7.1
합계	799	100.0

3) 문화격차 해소의 중요 역할자

- 제주지역의 읍면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83명(50.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81명(22.4%), 읍장/면장 33명(9.1%), 읍면지역 주민자치위원 31명(8.6%), 읍면지역 거주 문화예술인 23명(6.4%)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51> 문화격차 해소의 중요 역할자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83	50.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81	22.4
읍장/면장	33	9.1
읍면지역 주민자치위원	31	8.6
읍면지역 거주 문화예술인	23	6.4
기타	10	2.8
합계	361	100.0

3. 정책적 시사점

가.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위한 접근성 제고

- 지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75.1%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 읍면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0.7%로, 과반수 이상의 읍면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읍면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는 제주시 동지역(80.4%)이나 서귀포시 동지역(19.6%)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읍(면)지역 주민들은 제주시 동지역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 관람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이를 보더라도 제주의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읍면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으로 ‘대중교통과 접근이용의 불편’을 들고 있음.
 -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대중교통·접근이용의 불편(25.2%), 정보 부족(16.1%), 비용 부담(13.9%)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교통 및 접근성, 정보 부족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 관련 시설 및 기관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주민들의 제주시 동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관람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제주시 동지역의 문화

예술 관람 활동 관련 시설 및 기관에 대해서도 읍면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교통편의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필요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람 활동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영화 관람 25.4%,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등) 15.4%,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12.1%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읍(면)지역 주민들은 영화, 쇼, 콘서트, 연극(뮤지컬 포함) 등의 관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거주하는 읍(면)지역에서 가장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 행사는 연예공연(쇼, 콘서트 등) 20.7%, 영화 20.1%, 연극(뮤지컬 포함) 19.3%, 전시회 12.4%, 음악연주회 12.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읍면지역 주민들은 연예, 영화, 연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읍면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연예공연(쇼, 콘서트 등) 관람, 영화 관람, 연극공연(뮤지컬 포함) 관람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에 있는 적합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 관람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용(36.0%), 교통편의 및 접근성(28.5%), 문화예술 활동 내용(26.3%)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이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기회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이 계층 간 문화격차 요인이 될 수 있음.
- 읍면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는 사항은 비용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읍면지역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덜 느끼면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거주지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고령층보다는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이,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보다는 15년 미만 거주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층보다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층이, 사무직·기술직·전문직·자유직 종사자들이, 중상계층(주관적 계층)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달라지므로 읍면 지역은 계층별·세대별 문화예술 향유 관람 활동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72.3%)이 있다는 응답 비율(27.7%)에 비해 훨씬 높고, 제주지역 이외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한 곳으로 꼽은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이 82.0%로 나타남.
 - 제주의 읍면지역 주민들은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제주지역 이외에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경험을 살펴보면, 20대~30대 연령층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의 거주자들이, 학력이 높을수록 경험이 많게 나타남.
 - 이는 나이, 거주기간, 학력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높아지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까지 진출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읍면지역은 문화예술 향유 여건이 부족하다는 의미임.
- 청장년층과 고학력층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도 동지역 또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 기회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청장년층 및 고학력층이 읍면지역에서 불편함이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이 필요함.

다.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고려

- 문화예술 관람 활동 관련 시설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에 있어, 선호도가 높은 시설은 영화관(76.7%), 공연장(72.6%), 전시관(64.5%), 박물관(62.3%), 주민체육시설(62.0%), 도서관(60.1%) 순으로 나타남.
- 영화관과 공연장은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여 어디든지 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도가 높은 세대와 계층을 만족시켜 주어야 읍면지역의 거주 연령층이 다양해질 수 있음.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향후 영화관 이용 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20~50대 연령층(특히 30대 연령층)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층이, 사무직 및 기술직,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상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향후 공연장 이용 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30~50대 연령층(특히 30대 연령층)이, 15~20년 미만 거주자가, 사무직 및 기술직, 주부, 전문/자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이 대체로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내 읍면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28.3%), 문화공간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25.2%) 순으로 나타남.
-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공연장(20.3%), 영화관(15.3%)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를 높이는데 문화시설의 균형 배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은 어려우므로 최소한 읍면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하고, 동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이용 조건을 해소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
 - 문화시설 접근성, 문화시설 이용 시간, 시설 관리를 통한 만족도,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 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음.
- 읍면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 활동 관련 시설은 공연장과 영화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함.
 - 예를 들면 현재 일부 읍면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마을 영화관’ 사업을 확대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노인과 청소년들이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읍면지역 주민들이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여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공통된 항목은 ‘문화시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을 읍면지역에 건립·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더 많은 문화시설을 짓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문화예술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세금 또는 기부금 부담을 꺼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뮤지컬을 보고 싶다’ 3.85점, ‘처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 3.59점, ‘우리 사회는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3.55점, ‘공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5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 수준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태도에 있어 ‘처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 는 항목과 ‘공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는 항목의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함.
- 따라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향유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 조사 결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비용 투자를 요구하므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0.7%로 과반수를 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행정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IV.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 과제

- 일반적으로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음.
- 먼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제공, 문화예술 향유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콘텐츠 개발, 재정 지원 확충 등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런 관점에서 제주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을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고,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문화예술 향유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기를 요구함.
-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발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1. 문화예술 전문가 인력풀 공유 시스템 구축

- 보편적으로 문화예술 창작이나 향유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문화격차 의식이 발생하지 않음.
-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있거나 비교 가능해야 격차의식이 생길 수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절실함이나 필요성 여부에 따라 만족도와 격차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 문화격차는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읍면지역과 동지역 등)이나 마을과 마을 간, 개인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음.

- 문화격차 대상과 조건에 따라 해소 방안이 다를 수 있으나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 전문가에 대한 인력풀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읍면지역과 마을에 따라 문화시설(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별 문화예술 전문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함.
- 다시 말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를 협력 기관에 제공해 줌으로써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 기회를 제공함.
 - 이 결과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인적 교류가 가능해지고, 문화예술 향유 콘텐츠 제공이 용이해지며, 문화예술 활동의 격차가 줄어들 것임.
 - 또한 읍면지역(리 포함) 주민들이 거주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음.
- 따라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지역거점 문화예술 활동 지원센터' 조직이 필요함.
 - 이 센터는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조직·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인력풀 공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이 센터를 통해 문화예술 전문가는 물론 주민들 간에도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임.

2.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 문화격차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상에 따라 해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문화예술인의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발표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간에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외부적 제약이(문화시설 이용 등) 없어야 문화격차가 해소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반에 해당되는 ‘문화시설’ 건립에 역점을 두었음.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문화시설(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을 건립하였고, 이것으로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를 높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성, 문화예술 향유에 필요한 양질의 콘텐츠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음.
- 또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시간, 장소, 비용, 콘텐츠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여기에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시설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제공이 해당됨.

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정부는 2015년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후 ‘문화리더’ 양성으로 운영 방법을 확대하려는 계획임.

-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 제도와는 별개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마을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는 높아질 질 수 있음.

- 마을별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활동 가능하게 되면 문화예술 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발굴·운영·지원이 가능함.
 - 다만 전문가와 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문화예술 향유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가 과제임.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에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마을에서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 활동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함.
 - 첫째,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원하여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이수자들을 요청하는 마을에 파견하여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도와줌.
 - 둘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주도적으로 마을 주민 중에 희망자를 선택하여 일상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가로 양성함.

- 따라서 지역별로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문화적인 소통을 한다면 마을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임.

- 문화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그 재원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한다면 결국 지역 간·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나. 지역 시설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제공

- 문화격차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항목을 비교해 보면, 제주시 동지역과 비교할 때에는 공연 프로그램, 문화시설, 전시예술 순으로, 서귀포시 동지역과 비교할 때는 문화시설, 공연 프로그램, 전시예술 순으로, 서울 및 수도권지역과 비교할 때는 공연 프로그램, 문화시설, 문화강습 및 강좌, 전시예술 순으로 나타남.
 - 이로써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요인은 대개 공연 프로그램, 문화시설, 전시예술, 문화강좌 등임을 알 수 있음.
- 읍면지역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8.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문화예술 활동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문화기반시설 부족(33.1%)을 들었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60.7%로 높은 편이고,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이 5점 만점에 2.33점으로 나타나므로 대체로 불만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설문 조사 결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 제공,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그것에 노출되어 있었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에 따라 격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문화시설(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운영자가 주도적으로 문화격차 해소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음.
 - 지역 주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화향유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 공공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중요함.

-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주민들도 점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양한 욕구도 생길 수 있음.
-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단순 관람자에서 참여자로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가능함.
- 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할 때 가능하면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여 제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함.

3.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활성화

- 읍면지역 주민들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문화시설, 예산, 자원, 문화예술인의 수보다는 문화수준과 문화활동 기회의 차이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읍면지역 주민들은 문화시설, 공연 프로그램, 문화강습 및 강좌,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문화축제, 문화기부, 문학행사, 전시예술, 전통예술,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에 있어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문화격차의 심각도에 있어서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순으로 인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읍면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는 방안이 있음.
-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별로 문화예술 동호회를 조직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들은 문화예술 활동(관람, 참여 등)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 활동 단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줌.
 - 이때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장소가 선정되면 연습시간, 장소 이용 조건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 조건에 맞게 운영함.
- 지역 예술인들이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전문 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행정기관에서는 연 1회 문화예술 동호회 회원들의 발표대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문화예술 창작과 관람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음.

4. 문화예술인의 지역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급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들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문화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참여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문화예술 향유자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예술인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지원 방법도 필요함.
- ‘예술인협동조합’은 임의단체이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마련해 주고,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함.
 - 문화예술인은 안정적인 조건에서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함.
-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공동 작업이 필요함.
 -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자(창작 활동 등)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이와 같은 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향유자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의 문화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5.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공간 활용화

-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공간이 되려면 목적에 맞게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마을에 있는 복합시설(마을회관, 복지시설 등)은 문화예술 공간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고, 마을마다 편차도 있음.
- 다음의 시설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제외하면, 모두 이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화관 277명(76.7%), 공연장 262명(72.6%), 전시관 233명(64.5%), 박물관 225명(62.3%), 주민체육시설 224명(62.0%),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217명(60.1%), 사설 문화센터(마트 등) 214명(59.3%), 주민자치센터 204명(56.5%), 미술관 202명(56.0%), 마을회관 178명(49.3%), 종합사회복지관 167명(46.3%), 문화원 136명(37.7%), 경로당 125명(34.6%), 청소년복지시설 100명(27.7%)의 순으로 나타남.
 - 읍면지역 주민들은 문화시설 이외에 복합시설을 문화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문화시설이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이 있고, 복합시설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장소를 내주는 마을이 있는 반면 공적인 자산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마을도 있을 것임.
- 제주 전 지역(마을 단위) 대상 복합시설 관련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다음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부에서도 문화예술 향유 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등 기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복합형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정책을 펴고 있음.
 - 특히 이 시설들은 동호회 연습실, 공연·전시 발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형 공간으로 운영되길 권장하고 있음.
- 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전부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따라서 마을에서는 복합시설을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음.
 - 마을의 월별 복합시설 사용 계획에 따라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이용 조건, 이용 기간, 사용 목적, 경비' 등을 공지함.
 - 이와 같은 활동공간이 필요한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예술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결국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의 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면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임.

6.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가 부족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해도 적합한 전문가 섭외가 어려운 점이 있음.
- 주민들이 생활과 문화의 긴밀성을 알지 못하거나 필요 없다고 여길 경우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문화예술 교육 기관과 지역 주민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홍보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단조로울 수 있음.
 - 기 수혜자들 대상으로 소규모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문화예술 교육 기관 간에 협력 체계가 부족한 단점이 있음.
 -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가 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 가능하면 읍면지역 단위별로 차별화된 강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해 줌.
- 문화예술이 생활화가 되려면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교육기관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함.

- 문화예술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성교육의 토대로 활용 가능함.

○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읍면지역은 물론 도서지역 주민들도 문화예술 관람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향후 발전 과제 추진 계획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 과제는 연차별로 시행하고 확대해 가는 추진방식이 적절할 것임.

○ 발전 과제로 제시한 사항들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준비, 사업 시행, 평가 및 사업 확대 등 단계별로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됨.

<표 IV-1> 발전 과제 연차별 추진 계획

발전과제	연차별 주요 추진 내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문화예술 전문가 인력풀 공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문화예술전문가 인적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 지역거점 문화예술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풀에 대한 기관과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평가 및 확대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문화향유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평가 및 확대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문화예술 동호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및 발표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호회 조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평가 및 확대

발전과제	연차별 주요 추진 내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문화예술인의 지역활동 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준비 • 문화예술마을 조성 계획 수립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협동조합조직 및 운영 • 마을 중심의 문화예술마을 1개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마을 1개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평가 및 확대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공간 활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복합시설 사용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공간 활용에 대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시설의 문화활동 활용 공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평가 및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전담 전문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별, 계층별 문화예술 교육 강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평가 및 확대

참고문헌

- 문순덕·고승한·이원태·김해곤(2014), 『제주 문화 육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전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고희송(2010), 『제주도 문화 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박노동·김홍태(2012),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 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박태선·이미영·한우석(201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서우석·김정은(2010),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평가와 전망”, 『문화경제연구』 13-2.
- 장세길·이중섭(2013), “문화격차 해소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유형 분류의 다층적 접근 방법 모색”, 『지역사회연구』 21-3.
- 장혜미·김재범(2014), “문화격차 기존 개념과 정책적 인식의 한계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 정책』 창간호.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 및 국정목표』.
- 제주문화예술재단(2013), 『2013 제주문예연감』.
- 제주문화예술재단(2014), 『2014 제주문예연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2015), 『2015 주요업무보고』.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37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3·6·5 실천계획서』.
- 조권중(2004), 『서울시민의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원.
- 한상우(2009), 『경상남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위키백과사전 홈페이지(<http://ko.wikipedia.org>).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unesco.or.kr>).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Disparities among Regions in Jeju Island and Solutions

Moon Soon Deok & Kang Sei Hy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Jeju people's various desires for an environment for cultural and art enjoyment, and to suggest solutions for reducing the cultural disparities among regions after surveying the necessary factors for making culture into daily life.

For this, this study surveyed 361 residents in 12 towns and townships, where show the lack of cultural entertainment when compared to cities, on whether or not "opportunities/satisfaction/contents/infrastructure for cultural and art enjoyment" are available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who enjoy culture and art.

As a result, the residents in Jeju's towns and townships thought that the following matters need to be considered: improving accessibility to cultural and art tour activities, increasing the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strengthening cultural and art education and considering a balance among areas when establishing cultural fac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for reducing the cultural disparities among regions in Jeju Island: establishing a cultural/art expert pool sharing system, creating an environment for cultural and art enjoyment, expanding opportunities for cultural artists to participate regional activities, utilizing cultural activity spaces in complex

facilities and implementing/expanding a cultural welfare program of which performance groups visit areas with low accessibility to cultural activities.

Keywords : cultural disparity, cultural and art tour activities, cultural and art enjoyment, contents for cultural enjoyment, cultural facilities

<부록> 설문지

ID□□□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격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 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 기 춘

연구책임 : 문 순 덕 박사(064-726-7407, FAX 751-2168)

문의사항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최 영 근 박사(064-726-7403)		
면접원 이름		대상지역	읍(면)
조사일시	2015년	월	일

I. 문화예술 관람 활동

문화예술 관람 활동의 예

문학행사(시낭송 등) 관람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음악 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등)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민속놀이 등)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마술쇼 등)
 무용 공연 관람 / 영화 관람 / 박물관 관람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지역 이외의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2-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2-1. (☞ 2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하셨습니까?
 ① 제주시 동(洞)지역 ② 서귀포시 동(洞)지역

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3-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3-1. (☞ 3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하셨습니까?
 ① 서울 및 수도권지역 ② 광역시지역(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③ 도시지역(전주, 강릉, 춘천 등) ④ 기타()

4.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문학행사(시낭송 등) 관람
- ②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 ③ 박물관 관람
- ④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등)
- ⑤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등)
- ⑥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 ⑦ 무용 공연 관람
- ⑧ 영화 관람
- ⑨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등)
- ⑩ 해당사항 없음
- ⑪ 기타()

5. 귀하가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양을 쌓기 위해서
- ② 재미있을 것 같아서
- ③ 자녀교육을 위해서
- ④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 ⑤ 기분 전환을 위해서
- ⑥ 자기가 하는 취미분야 실력을 쌓기 위해서
- ⑦ 초대권이 생겨서/무료여서
- ⑧ 해당사항 없음
- ⑨ 기타()

6. 귀하는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① 혼자
- ② 가족·친척과 함께
- ③ 친구와 함께
- ④ 동호회원과 함께
- ⑤ 직장 동료와 함께
- ⑥ 해당사항 없음

7. 귀하가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 ② 시설 불편, 낙후됨
- ③ 환경의 불결함
- ④ 정보 부족
- ⑤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 ⑥ 이용시간대의 제한
- ⑦ 비용부담
- ⑧ 티켓 구입 불편
- ⑨ 기타()

8. 귀하가 거주하는 읍(면)지역에서 가장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 행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문학행사(시낭송 등) 관람
- ②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 ③ 박물관 관람
- ④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등)
- ⑤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등)
- ⑥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 ⑦ 무용공연 관람
- ⑧ 영화 관람
- ⑨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등)
- ⑩ 기타()

9. 귀하가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문화예술 활동 내용
- ② 비용
- ③ 교통편의 및 접근성
- ④ 주위사람들의 평가
- ⑤ 비평가들의 평가
- ⑥ 기타()

II. 문화예술 활동 관련 욕구 및 의식

10. 다음의 시설에 대해 귀하가 이용한 경험, 앞으로의 이용의향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시 설 종 류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함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① 이용한 적 없다	② 이용한 적 있다	① 잘 모르겠다	② 앞으로 이용 안 한다	③ 앞으로 이용한다
1) 마을회관	①	②	①	②	③
2) 주민자치센터	①	②	①	②	③
3) 청소년복지시설	①	②	①	②	③

시 설 종 류	※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함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		
	① 이용한 적 없다 ② 이용한 적 있다		① 잘 모르겠다 ② 앞으로 이용 안 한다 ③ 앞으로 이용한다		
4) 문화원	①	②	①	②	③
5)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①	②	①	②	③
6) 박물관	①	②	①	②	③
7) 미술관	①	②	①	②	③
8) 영화관	①	②	①	②	③
9) 공연장	①	②	①	②	③
10) 전시관	①	②	①	②	③
11) 사설 문화센터(마트 등)	①	②	①	②	③
12) 종합사회복지관	①	②	①	②	③
13) 경로당	①	②	①	②	③
14) 주민체육시설	①	②	①	②	③
15) 기타()	①	②	①	②	③

11. 다음은 귀하의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	응답의 예	전혀	별로	그저	대체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나는 예술이 화제로 등장하는 자리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뮤지컬을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더 많은 문화시설을 짓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가 거주하는 읍(면)지역은 비교 대상 지역에 비해 아래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1. 비교 대상 지역 : 제주시 동지역과 비교했을 때

항 목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1) 문화기반시설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2) 공연 프로그램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3) 문화강습 및 강좌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축제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6) 문화기부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7) 문학행사(시낭송 등)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8) 전시예술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9) 전통예술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13-2. 비교 대상 지역 : 서귀포시 동지역과 비교했을 때

항 목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하다	매우 심하다
1) 문화기반시설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2) 공연 프로그램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3) 문화강습 및 강좌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축제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6) 문화기부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7) 문학행사(시낭송 등)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8) 전시예술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9) 전통예술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의 차이는	①	②	③	④	⑤

IV. 문화격차 해소 방안

16.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② 문화공간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
- ③ 지역 예술인의 지원 및 육성
- ④ 읍(면)지역의 문화 관련 보조금 지원 확대
- ⑤ 문화부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⑥ 공공시설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 ⑦ 기타()

17. 제주도 읍(면)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보 기			
① 마을회관	② 주민자치센터	③ 청소년복지시설	④ 문화원
⑤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⑥ 박물관	⑦ 미술관	⑧ 영화관
⑨ 공연장	⑩ 전시관	⑪ 사설 문화센터(마트 등)	⑫ 종합사회복지관
⑬ 경로당	⑭ 주민체육시설	⑮ 기타()	

18.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③ 읍장·면장
- ④ 읍면지역 주민자치위원
- ⑤ 읍면지역 거주 문화예술인
- ⑥ 기타()

연구진

연구책임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강세현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기본연구 2015-07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문화격차 의식과 해소 방안 연구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5년 6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경신인쇄사

ISBN : 978-89-6010-407-5 936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Basic research

Pending issue research

Policy research

JDI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Tel.064-726-0500 Fax.064-751-2168
www.jdi.re.kr

비매품



9 788960 104075

ISBN 978-89-6010-407-5